國統 74—1—4

20

北韓의 生産管理에 關한 研究

1974. 12.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下半期 学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2.

研究機關 : 國 民 大 学

研究責任者 : 金 基 得

目　　次

序　論 ………… 3

第一章　經濟計劃政策과　重工業優先主義 ………… 9

第一節　五個年計劃의　基本政策 ………… 11

第三節　生産現地　指導事業의　本質 ………… 17

第三節　經濟計劃의　綜合的 考察 ………… 19

第二章　北韓의　生産管理 — 中央管理 ………… 27

第一節　北韓生産管理概要 ………… 29

第二節　中央　및　地方生産管理機構 ………… 38

第三章　北韓의　生産管理 — 現場管理 ………… 47

第一節　工業生産管理 ………… 49

第二節　農業生産管理 ………… 59

第三節　商業生産管理 ………… 65

第四節　生産管理의　綜合的　考察 ………… 67

結　論 ………… 81

序 論

共産主義世界를 指向한다는 社会主義国家의 経済를 論함에 있어서는 実로 尨大한 問題点에 関心을 가질 수가 있다. 或者는 共産主義国家의 経済理論이라고 할 수 있는 社会主義経済理論을 構成하는데 関心을 보이고 있으며 또 或者는 歴史的 過程으로서의 経済的 発展状況을 要訳하며 同時에 共産主義国家가 理念上 提示하게 된 経済政策의 特徵에 関心을 두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社会主義経済의 特異点을 計劃에서 찾고 理論的으로 経験的으로 이를 究明하려는 者도 있으며 또 共産主義国家의 生産 能力을 重要視하고 工業生産의 規模와 実情을 検討하는 学者들도 있다.

이러한 反面에 経済発展学의 見地에서 産業発展의 方向과 速度를 計劃的으로 또는 具体的으로 捕捉하여 보려는 努力도 있다. 또 発展의 根拠를 企業活動에 두고 共産主義国家의 企業経営에 関心을 表示할 수도 있으며 이와 関聯하여 「이데올로기」가 産業社会의 生産活動에 如何한 役割을 遂行하여 왔는가를 究明하는데 意義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여기에 言及한 以外에도 여러가지 特殊分野 또는 課題에 関한 여러가지 問題点이 提示될 수도 있고 事実上 論議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一面 共産主義国家에서는 그들의 経済問題는 「맑스 레닌」主義에서 始終하여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므로 「맑스 레닌」主義의 見解에 立脚해서만 解釈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며 実

際로 그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共産主義社会의 諸問題들 「맑스•레닌」主義以外의 다른 理論과 見解로서 分析하는 것은 何等의 意義가 없는 것이라고 強力하게 示唆하는 것이며 이에 関한 文献의 例를 들 必要도 없이 共産主義者의 宣伝文句를 보면 自明한 것이다.

또한 共産主義経済建設이 과연 「맑스•레닌」主義의 理論과 合致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도 提起될 수 있다.

그러나 共産主義国家의 経済問題는 「맑스•레닌」主義만으로 考察하여야 한다는 主張은 成立되지 않으며 頑強히 排撃되어야 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여기에는 몇가지 뚜렷한 理由가 있다. 첫째는 오늘날 経済発展 또는 工業化에 있어서 最尖端을 걷고 있는 나라에 蘇聯을 包含한다 하여도 「맑스•레닌」主義를 全然 問題視않고 있는 境遇가 거의 全部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라는 点이다. 이미 学者에 依하여 指摘되었지만 오늘날 経済的으로 高度의 発展을 이룩한 나라는 「맑스•레닌」主義에서 規定된 所謂 資本主義経済体制를 持続하면서도 分配面에서 全般的 社会階級闘争을 避하고 生産能力을 더욱 拡張시키며 労動生産性에서 「맑스•레닌」主義에 立脚한 나라보다 継続 優越性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共産主義国家가 또한 高度의 発展을 이룩하고 非共産主義 国家와 比肩할 程度로 된다 하여도 「맑스•레닌」主義에 立脚한 解説은 하나의 理念的見解에 不過하며 唯一無二

한 絶對 理論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맑스·레닌」主義는 오늘날 共産主義国家中 才一 高水準에 到達하고 있는 蘇聯의 経済発展의 過程과 政策内容을 設明하는데 充分치 않음이 立証되고 있다는 것이다.

「맑스·레닌」主義는 決코 오늘날의 近代産業社会의 大規模 組職性을 豫見하고 創造된 理論은 아니라는데서 共産主義国家自体의 発展을 説明하는데 不充分한 것으로 看做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F. Harbison, C.A, myers 両 教授는 이 問題에 関하여 「레닌」의 State and Revolution에서 資本主義社会가 達成한 一定한 経済的 與件을 利用하여 「資本家들과 官僚主義者들을 追放시킨後, 24 時間内에 武装勞動者로 하여금 生産과 分配를 支配하는 일에 前者들을 代替하는 것이 完全히 可能하다」라고 하고 또 모든産業管理는 「加減乗除」의 네가지 原則을 理解함으로써 解決될 수 있다고 말한 点을 引用 오늘날의 蘇聯의 産業管理의 実際를 보건대 그것이 事実이 아니었음이 判明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即 이것은 「맑스·레닌」主義는 先進国家의 近代産業社会의 革創期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가지 過渡現象을 解決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일지는 모르나 決코 오늘날 近代社会가 土台로 하고 있는 高度의 産業体制에 反映되고 있는 여러가지 実際들 끼리 짐작하고 마련된 것이 아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然이나 前記 両教授에 依하면 現代 蘇聯의 産業社会를 実際로 管理하고 있는 사람들은 蘇聯 革命初期에 있었던 "revolutionary intelle ctuals"는 絶對 아니고 " pr-

ofessional buveaucrats"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共産主義者들이 흔히 主張한 바와같이 오늘날 共産党이 執權하고 있는 社会는 現在로 보아서 社会主義過程을 밟고 있다는 点이다. 即 「어느 한나라도 社会主義 단계를 거치지 않고 資本主義로 부터 직접공산주의에 들어 설수는 없는 까닭으로 過去에 資本主義的 歷史를 所有한 社会가 共産主義의 理想을 達成하려면 一定한 要件을 滿足시키는 段階가 必要하는데 이것을 社会主義라 하며 蘇聯을 비롯한 모든 共産主義 国家가 오늘날 여기에 該当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社会主義로 부터 共産主義에로의 이행을 위한 前題条件(社会主義目的이란) 具体的으로

① 共産主義의 物質 技術的 토대를 築城하며

② 都市와 農村間의 本質的 差異를 消滅

③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청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一言으로 社会主義 段階에서는 工業化를 한다는 것인데 経済発展의 一般理論에서도 보는 바와같이 工業化의 過程이란 連続的인 것이고 恒常 새로운 技術과 投資를 要하며 어떠한 完成段階가 具体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共産主義者들이 社会主義가 共産主義로 転換하는 時機라는 것은 永遠히 오지 않는다고 斷定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論한 여러가지 理由로 因하여 「맑스·레닌」主義는 共産主義者들의 主張과는 달리 現在까지의 共産主義国家의 経済発展을

說明 또는 展望함에 있어서 올바른 理論的 根拠가 되지 못함은 分明하다. 設使 共産主義国家의 経済発展 方向이 窮極的으로는 「맑스·레닌」主義를 指向하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将来의 目標를 말하는 것이오 비록 오늘의 過程이 그 目標로 向하는 過渡期的인 段階라 할지라도 過渡期에 있어서의 経済的 諸現象을 説明하는 充分한 根拠로 看做될 수는 없는 것이다. 勿論 이 点을 더 한層 客観的으로 証明하기에는 例証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本書의 各處에서 北韓의 케이스를 들어 言及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맑스·레닌」主義만이 共産主義国家의 経済 現象을 説明할 수 있다는 主張은 論理的으로 否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여둔다.

第一章 經濟計劃政策과
重工業優先主義

第一章 経済計劃과 重工業優先主義

才一節 五個年計劃의 基本政策

金日成은 「五個年計劃」의 全貌를 紹介하기에 앞서 同計劃의 基本政策에 對하여 言及하였는데 이는 「3個年計劃」과는 判異한 差가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이에 関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민경제 각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부문들은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건설을 더욱 힘차게 추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높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即 이것을 解釈한다면

① 重工業의 優先的 発展으로 拡大再生産을 保障시키고

② 그러한 条件下에서 農業과 経工業의 急速的인 発展을 図謀하며

③ 그러한 基礎위에서 人民들의 物慾的 福利向上을 期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에는 重工業優先主義의 経済発達을 指向한다는 것이 뚜렷이 둔 것이며 金日成은 이로써 社会主義化의 路線을 뚜렷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 金日成은 重工業優先主義가 必要하게 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説明하였다.

"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은 우선

중공업이 담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 経済全体分野에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선과 노동생산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重工業優先主義를 擇한 原因은 北韓経済를 近代化 하는데 工業化의 方式을 択하여야 하며 그것은 人的資源의 効果的 活用과 生産技術의 向上을 期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重工業優先主義의 経済発展은 이미 널리 알려저 있는 바와 같이 1920年代의 末葉에 들어선 蘇聯이 새로운 経済計劃体制(Gosplan 또는 New Economic Policy) 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後 数次에 걸처 樹立한 5個年計劃에서 크게 問題視된 것이다. 即 蘇聯은 計劃初(1924~5)에 있어서 工業生産의 3分의1을 占한 重工業生産이 1945年에 와서는 総工業生産의 4分의3에 達하게 되었는데 이는 意識的으로 重工業을 育成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그런데 蘇聯이 重工業優先主義를 択하게 된 것은 그것이 반드시 社会主義的 経済建設의 理論(即 막스主義의 再生産論)을 適用한다는 観点에서 보다는 当時 蘇聯은 唯一한 社会主義国家로서 独力으로 経済建設을 해 나가야한 處地에 있었고 特히 国防力의 強化라는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는 軽工業 発展을 図謀하거나 또는 軽工業과의 均衡을 重要視하면서 重工業을 発展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不可避한 것이다. 또 여기에 蘇聯은 「막스」主義가 가리키는 바 高度로 発達된 資本主義国家가 아니고 全然 近代化의 性格을 띠지 못한

帝政露西亜社会로 부터 社会主義化로 急作스럽게 移行하게 되어 重工業優先主義를 解決策으로 登場시킨 것이라고도 하겠다. 따라서 確実히 蘇聯의 重工業優先主義도 北韓을 絶對 社会主義国家로서 発展시키거나 結局에 가서는 達成하여야할 大衆生活水準向上을 위한 先行的인 段階로서 主張된 것이 아니며 結局 北韓의 時代的 與件下에서 金日成集団의 利益을 追究하려는 意図下에서 発生된 것이다.

北韓이 重工業優先主義를 才一次 五個年計劃의 基本政策으로 삼게 된 理由는 大体的으로 다음과 같다고 判斷이 된다.

① 3 個年計劃에 있어서 重工業分野의 復旧事業의 不振 3 個年計劃事業은 全般的으로 目的達成에 不振한 것이었다. 本論에서는 이에 関하여 言及하는 것은 아니지만 期間중에 戦前水準에 未達한 事業이 許多하였다. 또한 그러한 不振状態는 工業分野에서 甚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当時 北韓의 技術陣이 数的으로나 質的으로 貧弱하여 重工業施設은 大部分 外国人 技師에 의한여 그 復旧가 着手되었다는 것으로도 推定할 수가 있다. 따라서 「5 個年計劃」에 있어서는 重工業分野의 復旧建設을 促進시키기 위하여는 重工業優先主義가 必要하였던 것이다.

② 兵器生産을 中心한 機械工業의 発展策──前節에서 論한 바와 같이 兵器生産을 위한 機械工業의 早速한 発展은 経済建設의 重大目標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를 拡張하고 새로운 武器를 生産하기 위하여는 軽工業에 대한 投資보다 重工業의 一分野인 金属工業의 発展을 必要로 한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蘇聯이

1930年代 重工業優先主義를 択한 것과 同一한 理由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5個年計劃 期間중에 金日成은 兵器以外에도 多少의 電気 農業 鉱山 建設機械등을 生産하려고도 하였다.

(3) 外国援助의 絶望 —— 3個年計劃 期間에도 이 援助計劃에 따른 物資導入이 있었으나 年次的으로 볼때는 急速한 減少를 보이는 것이었으며, 그 展望은 無에 가까운 것이었다. 金日成은 1956年 6月1日 所謂 親善使節団을 引率하여 蘇聯 및 東欧 衛星国家를 再次 訪問하여 援助를 交渉하였으나 그 成果는 微少하였다 또 있다 하여도 実際에 있어서는 有償援助인 借款아니면 物資交換의 性格의 것이었다 따라서 経済建設에 必要한 工業施設을 自家生産의 方途밖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④ 外国貿易의 全無 — 後進国의 重工業의 発展없이 工業化를 하려면 先進国으로 부터 施設을 導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才一次 또는 才二次産業製品을 輸出하여 外貨를 獲得해야 하는 것인데 北韓은 輸出産業이 当時 全無하였다. 唯一한 輸出可能品은 鉄鉱石을 中心으로한 原鉱이었으나 이것은 大型武器購入을 위하여 蘇聯에 一括輸出되어 있었다. 따라서 工業化를 위한 施設은 自家生産의 方途以外에는 求得할 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

(5) 人的資源의 不足 —— 3個年計劃 期間에서 経験한 바와 마찬가지로 北韓은 継続하여 人的資源의 不足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当時 食糧生産은 아직 充足状態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人口増加를 企図할 수는 없었으며 또한 人口増加에 의한 労動力不足解

決은 短期間에 達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生産施設의 機械化를 通한 勞動生産性의 昂揚은 工業化優先主義의 必要性을 確認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金日成은 北韓経済가 当面하고 있는 時代的이 與件에 비추어서 모든 開発資源을 分明히 工業化를 위한 重工業分野発展에 集中投資하기로 한 것이다. 重工業優先主義方式에 의한 産業化는 理論上으로 오늘날의 後進国家가 다 願하는 바라고 보겠으나 그것은 軽工業発展의 遅延과 그러므로 因한 消費生活에 對한 甚大한 威脅을 招来하여 窮局的으로는 政治的•経済的•社会的 不安을 造成도리어 経済発展을 沮害한다는 理由하에 容易하게 採択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北韓과 같은 所謂 社会主義国家 또는 独裁国家体制下에서는 国民에 對한 一方的 強要 즉 消費水準의 向上抑制로만 可能하기도 하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軽工業과 同時에 発展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人民들의 物質的 福利를 図謀할 수 있다고 主張한 것이다.

重工業優先主義의 経済政策을 採択하는 根本的 理由는 確実히 国民의 物質的生活의 向上과는 距離가 먼것이라는 것은 같은 理論的 및 実証的 考察로 充分히 納得할 수 있는 것이다.

① 重工業 優先主義란 軽工業의 均衡的인 発展水準 以下로 遅滞됨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으면 優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重工業優先主義가 継続되면 될수록 重工業과 軽工業의 不均衡狀態는 深刻하여지며 消費製品生産과는 無関한 重工業生産体制가 마련되게 된다.

(2) 重工業優先主義는 軽工業分野에 있어서의 技術投資를 遅延케하고 이러한 現象은 長期的으로 累積되어 있을때 近代的 消費製品의 出現을 容易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発展된 重工業分野가 軽工業建設을 위한 資材와 施設을 供給할 수 있게 된다 하여도 消費製品의 生産은 重工業과 同時에 発展하는 境遇와 같이 容易하지는 않을 것이다.

(3) 蘇聯에 있어서는 1929 ~ 52 年의 23 年間에 重工業分野對 軽工業分野의 投資比率은 76.8 % 對 23.2 %이였는데 그러므로 因하여 重工業分野의 発展은 相当한 것이었으나 両分野의 均衡的 発展이 円滑치 못하여 数年前부터 消費財増産이 問題視되었다 그러나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하고 政治問題에 까지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重工業 우선주의는 그가 主張한 바와는 달리 純粋한 経済的 理由에서 보다 政治的인 動機에서 出発한 経済的與件의 急速的인 解決에서 必要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妥当하다 確実히 北韓은 当時의 重工業建設自体만을 위하여도 所有한 以上의 資金이 必要하였든 것이며 軽工業의 発展이란 実質的으로 五個年計劃의 目標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人民의 物質的福利向上은 後日에 가서 비로소 問題視되는 것이다.

才二節　生産現地　指導事業의　本質

金日成은 1956年12月 党中央委員会全員会議에서 五個年計劃 遂行은 党中央委員들의 積極的인 指導事業에 依하여 保障된다는 主張을 함과 同時에 各常任委員들은 道別로 分担을 하여 経済建設을 現地에서 독려하고 監視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金日成을 비롯한 各常任委員들은 現場巡視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는 五個年計劃의 初年度인 1957年의 1個年 全般에 걸쳐 施行된 것이다. 그러면 이 1年間의 金日成만의 行脚을 簡単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57年1月21日 平安南道 農業協動組合들을 視察하고 幹部들을 召集 「農村경리 금후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들에 對하여」라는 題目의 演説을 하였다.

둘째, 1957年2月14日→平壌에서 国営商業機関幹部들에게 「商品流通事業을 改善 強化할데 對하여」라는 題目의 演説을 하였다.

셋째, 1957年3月26日——咸鏡南道一帯를 視察하고 各種道機関幹部들을 召集하여 「함경남도 당 団体들의 課業」이라는 演説을 하였다.

넷째, 1957年4月19日——党中央委員会 全員会議를 開催하고 「水産業을 더욱 発展시킬데 對하여」라는 結論을 내렸다.

다섯째, 1957年7月5日——平壌에서 道, 市, 郡党 幹部 및 組織員들을 召集하여 「党団体를 튼튼히 꾸리며 党의 経済政策을 관철할데 대하여」라는 演説을 하였다.

여섯째, 1959年8月2日——平安南道 文德郡에 나가 最高人民会議 代議員 立候補를 위해 経済建設에 對해 演説을 하였다.

일곱째, 1957年9月11日——平安에서 全国機械工業에 從事한 代表者를 召集하고 「機械工業의 発展은 5個年 計劃의 成果的 遂行을 위한 열쇠이다」라는 演説을 하였다.

여덟째, 1957年9月20日——最高人民会議 第1期 第1次 会議에서 「社会主義建設에서 人民政権의 당면 課業에 對하여」라는 題目의 演説을 하였다.

아홉째, 1957年10月15日——党中央委員会 全員会議에서 「建設分野에서 党政策을 관철할때 對하여」라는 結論을 내렸다.

열째, 1957年12月13日——黄海道 農業協同組合을 視察하고 「農村경리의 社会主義的 개조에서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할때 對하여」라는 演説을 하였다.

이러한 行脚의 全部는 生産現地와 直接関係를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3個年 計劃」에 비추어 보아 経済建設을 中心으로 한 内容이 圧倒的으로 多数를 占하게 되고 地方視察度数가 增加한 것이라 보겠다.

이러한 指導方針의 効果는 一般對象에게 経済建設에 對한 必要性을 認識시키고 経済建設에 對한 積極参與를 確保하고 施行状況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年間의 現地指導事業은 비록 그自体가 効果를 나타내였다 하여도 「5個年 計劃」은 成果를 만족스럽게 나타내

지 못하여 여러가지 다음에 論하는 政策上의 補強事態를 빚어내게 한 것이다.

才三節 経済計劃의 綜合的 考察

이상에서 論한바와 같이 「5個年計劃」은 重工業을 優先的으로 発展시키며 軽工業과 農業을 同時에 発展시켜 北韓大衆의 生活水準向上에 劃期的인 変革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主張에서 出発하여 意慾的인 生産計劃을 提示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本計劃은 本節 E項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許多한 特徵과 盲点을 内包하는 것으로 그 施行過程에 있어서는 本節E項에서 考察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必要措置를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면 才1次年計劃期間에 北韓에서 発生한 諸経済現象에서 政策的 意義를 갖는 몇가지 事実을 論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北韓의 経済計劃은 그 樹立에 있어서 生産을 爲하여 動員이 可能한 有効資源에서 出発하여 施設投資의 規模를 策定하고 다음에 資本係数를 勘案하여 国民総生産의 増加 또는 各種 財貨의 生産量을 策定하는 一般的인 順序가 択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事実은 그와 正反對로 必要한 財貨의 生産量을 策定하고 이를 確保하기 위하여 資本係数의 考慮없이 施設投資 및 資源開発을

規定하는 역행적인 方式을 取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経済計劃은 하나의 必要性의 提示가 아니라 強制性을 띠는 命令인 것이며 国民의 生活水準向上을 위한 経済開発計劃이라기보다 政権者의 政治的 目的을 遂行하는 物質的 要求의 白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国民은 無条件 이를 履行하여야 할 義務를 負荷받는 것이다.

이러한 条件下에서 経済計劃의 Implementation은 正常的인 経済 또는 管理活動이 아니라 超非常的인 精神活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活動이 展開되는 限은 北韓의 経済体制는 自由経済体制에 있어서의 戦時体制를 훨씬 凌加한 完全計劃経済의 様想을 提示하는 것이며 이러한 様相은 国民生活의 完全組織化 (regimentation), 모든 物資 (消費, 産業을 莫論하고) 의 配給制度와 強制価格制度, 賃金水準의 完全凍結 1 個年商工業의 完全抹殺등에서 充分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経済計劃의 Implementation이 正常的인 経済活動 및 管理活動이 아니고 一種의 精神的 또는 心理的 活動으로서 説明된다는 것은 北韓社会가 所有하고 있는 経済的 力量 또는 生産能力이 経済的 要因以外에 다른 要因이 크게 作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同時에 이러한 非経済要因이 크게 作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同時에 非経済要因의 性格 또는 変化에 따라 北韓의 経済活動은 現在로 보아서도 安定되어 있지 못하여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非経済的 要因에 對하여는 別途의 充分한 硏究가 있어야 하지만 暗示的으로 指摘을 한다면 北韓의 政治理念, 政治体制 金日成의 Chorisma, 武力統一意慾, 市民生活의 Regimentation 等에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러한 非経済的要因이 変化한다면 北韓의 経済活動은 純粹한 経済的 要因이 持続된다 하여도 크게 変化할 것이다.

그런데 非経済的要因이란 長期間에 걸쳐 変化하지 않는 것은 絶對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의 経済計劃은 経済的 意義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 欠陥은 施行過程上의 여러가지 措置로 維持되고 있으며 이러한 過渡的 措置는 規模와 幅에 있어서 計劃樹立自体보다 더 커다란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例로는 이미 分析한 바와 같이 千里馬作業班運動, 工作機械 새끼치기 運動, 党幹部現地指導事業, 個人商工業의 抹殺, 各産業分野熱誠分者大会, 文化宣伝事業등을 들 수 있다.

即 経済計劃이 일단 施行段階에 들어가면 計劃의 妥当性如何는 再論의 여지가 없고 다만 모든 豫備를 動員하여 이를 達成하도록 強要되는 것이며 政權機関은 이를 위하여 理念 原則 및 手段方法에 拘碍되지 않는 것이다.

経済計劃의 施行面에 全力을 다하여 傾注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理由는 計劃의 樹立은 어디까지나 展示効果를 노린 것인데 下部執行者가 誠実하게도 그대로 施行에 옮기기 위하여 各種事業을 同時

에 着手하였을 때는 資源의 不足으로 모든 事業이 同時에 完成될 수 없으므로 이를 計劃修正이라는 正常的 過程을 거치지 않고 一部事業에 集中的으로 資源을 投下시켜 그 事業이나마 完成시켜 보려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金日成의 「中心고리잡기」라는 指導理念인 것이다.

따라서 經濟計劃은 施行過程에 있어서 內容的으로나 時間的으로 任意變更되는 것이며 비록 그것이 法的 性格을 띄는 것이라 하겠지만 計劃으로서의 価値는 顯著히 低下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北韓의 權力者는 外部에 発表치 않은 別途의 經濟計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도 北韓權力者는 恒時 現実的으로 妥当한 水準과 規模를 훨씬 초과한 生産을 国民에게 要求하고 있을 것이며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經濟計劃의 意義低下와 施行過程上 諸般措置의 重要性의 認定은 不可避 經濟政策의 変換을 가져오며 그 変換은 無計劃的인 면과 無原則的인 面을 免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한 代表的인 例의 하나는 農村経理의 協同化인 것이다.

即 計劃 初期에 있어서는 個人農業経営을 認定하여 国営協同化政策을 採択하고 短時日內에 이를 断行하고 만 것이다. 農業協同組合의 規模에 對하여도 相克的인 変換이 있었다.

個人商工業의 抹殺은 그러한 例의 하나이며 社会主義競爭形態로서의 千里馬運動도 그러하다.

外

3

郡単位의 綜合農場의 試驗은 北韓農村에 對한 또 하나의 政策変換을 企図하려다가 하지 못한 例의 하나이며 食糧配給制度의 廃止약속의 履行不能은 類似한 例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勿論 北韓의 共産主義理論家들의 이러한 政策的 変換은 共産主義乃至 社会主義経済体制로의 履行에 있어서 階段的인 発展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모든 主張은 事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理論的 体系를 樹立하는데 不可避하다면 金日成選集마저 修正 또는 削除 添加가 되는 것이다. 共産主義 또는 社会主義理論과 明白히 이탈 되는 경우는 그것은 北韓의 実情에 맞도록 하기 위한 社会主義的創造力의 発揮라는 것이다.

이러한 角度에서 볼 때는 北韓 社会의 経済体制를 다른 社会体制의 面과 分離하여 論한다는 것은 無意味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北韓의 才 1 次五個年計劃은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理由로 約 3年이 경과하게 되자 그 成果如何를 莫論하고 無意味하게 되어 버렸다. 計劃과 実際에 현격한 差異가 発生하여 「五個年計劃」案을 継続 維持할 必要性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特히 軽工業과 農水産業의 発展은 計劃과 顕著한 差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또한 全力을 다 傾注한 重工業도 그 発展이 如意치 못하였다.

따라서 金日成은 「五個年計劃」自体를 포기하기로 생각 아니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의 이와 같은 思考는 다음과 같은 그의 自身의 말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明年을 완충기로 規定하고 약한 고리의 제철, 제강, 전기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를 계속 더 発展시키려고 합니다. 이래서 第1次 5個年計劃을 앞당겨 完遂하기 위하여 빨리 달려오는 과정에서 일부 균형이 잡히지 못한 점들을 좀 정비하고 조절하려고 합니다.

即 여기에서 指摘된 製鉄, 製鋼, 電力, 石炭, 鉄道, 運輸産業은 가장 計劃과 差가 많이 난 産業들이며 이들의 生産量의 調整을 위해서는 「5個年計劃」이 必要없는 완충 期間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또한 金日成은 같은 場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継続하였다.

"明年에(1960) 우리는 人民生活을 더 높이기 위하여 住宅을 많이 建設하며 人民들의 부식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重点을 두자는 方針입니다. 그러므로 축산업의 発展에 화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軽工業 部門에서는 明年에 地方工業을 더욱 発展시켜 여러가지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生産하여야 합니다. 即 食料品과 軽工業消費品生産이 如意치 못하여 여기에 拍車를 加하기 위하여서는 「5個年計劃」은 不必要하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綜合的으로 보건데 「5個年計劃」은 確実히 途中에 抛棄된 것이다. 勿論 포기라는 것은 産業建設의 中断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生産目標達成에 있어서 커다란 支障을 招来하며 計劃이 提示한 여러가지 約束이 虚無化함을 免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混合経済体制下에 있어서의 経済計劃의 포기는 計劃은 計数的 経

済成長의 指標에 不過하므로 経済成長의 遅滞를 가리킬뿐 커다란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北韓에 있어서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経済計劃은 法的 拘束力을 가진 経済成長의 原動力이므로 経済計劃의 抛棄는 経済成長의 遅滞뿐만 아니라 混乱의 惹起를 말하는 것이고 経済活動의 規模가 拡大되면 拡大될수록 그러한 可能性은 増加하는 것이다.

第 二 章　北韓의 生産管理

—中央管理

第二章 北韓의 生産管理 — 中央管理

才一節 北韓 生産管理 槪要

北韓의 生産管理는 社会主義体制를 経済政策의 基本路線으로 삼고 있는 만큼 機構面에서 尨大하고 複雑한 内容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段階的으로 考察하기 위하여 全国的인 機構와 運営에 對하여 槪略的인 分析을 하여 보기로 한다. 北韓의 북괴정권이 表面上 主張하고 있는 全国的인 生産管理機構는 朝鮮労動党 階層機構를 除外한 一聯의 生産関係部署의 系列이 된다.

即, 北韓의 憲法은 国家主権의 最高執行機関으로서 内閣을 設定하고 内閣은 自己事業活動에 있어서 最高人民会議에 服従하도록 하였으며 生産管理에 對한 最高機関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内閣은 内閣常務会議下에 内閣値属局 및 省을 두고 憲法 才55条에 의하여 地方行政機関인 直轄市, 道人民会議와 그리고 ① 對外貿易 ②貨幣 및 信用制度 ③ 国家 및 地方豫算 ④ 国家産業 商業機関 및 農村経済機関 国家運輸 通信機関 ⑤ 土地, 富源, 森林, 河海의 利用 ⑥ 人民経済計劃 樹立 ⑦ 副相 主要産業機関의 責任者의 任免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内閣은 生産活動에 関한 方針을 樹立하여 傘下機関으로 하여금 施行토록 하는 監督機関일 뿐만 아니라 一部의 生産活動에 對하여 直接管理를 하는 運営

機関이기도 하는 것이며 여기에 該当되는 生産活動体는 種類로 区分되는 것이 아니며 具体的으로 工業生産에 있어서 1, 2級 国営工場 農業生産에 있어서는 国営形態를 갖춘 農場, 牧場 또는 漁場 그리고 商業生産에 있어서는 国営商店網등이 있고 管理는 하지 않으나 所有權을 行使하는 農機械作業所가 있다.

地方生産管理機構로서의 直轄市, 道人民委員회는 市, 郡 人民委員会의 管理活動을 監督하는 同時에 地方生産活動에 속하는 3級以下 企業所, 地方経営農, 牧場, 漁場 그리고 地方商業網을 直接管理하고 있다. 그리고 実質的으로는 最末端의 綜合行政機関인 市, 郡 人民委員会는 里, 区 人民委員会를 監督하는 同時, 農村의 경우는 農業協動助合, 漁村의 경우는 水産協動組合의 運営을 管理한다.

그리고 里行政単位中 「4百名 以上의 成人住民을 가진 工場地帯 鉱山地帯, 漁村인 里, 成人 人口 60%以上의 勤労所得(賃金)으로 生活의 基本을 삼는 里는 労動者区라고 改称되고 따라서 区에서는 生産管理의 問題는 人民委員会에서 보다 区所在 企業所에서 専担하는 것이 되고 또 里 名称을 그대로 保有하고 있는 곳에서는 農業協動組合 単位를 里行政単位와 一置시키고 里人民委員会의 長으로 하여금 協動組合長을 兼任시키게 하고 있으므로 里人民委員会의 生産管理機能이란 有名 無実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市, 郡, 人民委員会가 管理하는 生産活動으로서 그 이외에 個人商工業者들에 의하여 構成되는 各種 生産 協同 組合들이 있다.

그러나 農業協同組合을 除外한 모든 協同組合은 萎縮一路에 놓여

있으며 全部가 国営企業所로 変化되는 것도 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考察한 것은 表面的인 管理体制이며 実際에 있어서는 소위 朝鮮労動党의 全国体系와의 関聯性을 無視할 수가 없다.

첫째, 内閣은 最高人民会議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것이 아니라 党中央委員会 그리고 党中央常任委員会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것이다. 또한 모든 経済政策, 経済計劃, 経済指令의 作成, 修正 및 評価는 党中央委員会에 依하여 決定되고 発表되여 内閣은 恆時 이를 事後的으로 承認하는 節次만을 取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生産管理에 있어서도 最高権限機関은 労動党의 中央機構라고 断定하여야 할 것이다. 所謂 朝鮮労動党의 党規約에 의하면 党의 最高機関은 党大会이고 党大会는 党中央委員会를 選出하고 党中央委員会는 中央政治委員会를 選出하도록 되어 있으며 各委員会의 委員長은 中央委員会 全員会議에서 選出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実質的으로는 政治委員会가 最高権力機関이며 中央委員会 全員会議와 党大会는 하나의 要式行為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生産에 関한 最高決定機関도 中央委員会 全員会議 (3個月 또는 6個月간격으로 開催) 또는 党大会 (規約上으로는 4年에 1回式이나 実際로는 不定期) 가 開催되는 것은 宣伝効果를 中心으로 하여 對外的으로 発表할 必要가 있을 경우에 限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한 例로는 第1次 5個年計劃을 3年으로 終息하여 버리는 決定에 있어서는 党大会를 召集하지 아니 하였음을 例로서 들 수 있다.

그리고 中央委員会와 中央政治委員会의 委員長職은 恒時 金日成이가 占有하였음으로 経済政策 및 生産管理의 最高権力者는 金日成이라는데에 疑心할 바가 없는 것이다. 党의 生産管理의 参與는 内閣을 通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党은 自体의 地方機構를 通하여 実質的으로 모든 生産管理体에 直接的인 命令, 指揮 감독 報告網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党中央委員会는 中央党部의 常設部局을 通해 内閣의 모든 部署를 指揮 統制할 뿐만 아니라 内閣의 各 部署에 組織된 初級党委員会를 通해 二重的인 監視를 하게 되며 또 直轄市道에 党委員会를 두고 市, 郡(区域)党委員会와 重要 産業機関의 初級党委員会를 直接 統制하고 또 市, 郡(区域)党委員会는 地方에 있는 生産体의 初級党委員会 및 党細胞를 指揮監督하고 있다.

그런데 初級党委員会 또는 党細胞는 党員 및 候補党員의 数가 3名以上이 되면 어느 곳에서나 発生하는 것이므로 実質的으로 모든 生産体인 党의 組織이 浸透되어 있는 것이 되며 따라서 北韓의 生産管理는 実質的으로 党의 直接的인 全面統制下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特記할 事実은 重要産業体中 1,2級 国営工場内에 組織된 党은 初級党委員会인데도 不拘하고 市, 郡(区域) 党委員会傘下에 두지 않고 直轄市 道党委員会에서 直接, 監督케 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 概略的으로 論한 바와 같이 北韓의 生産管理体制는 完全한 二重的管理組織体系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北韓만의 独特한 차림은

아니고 政治，経済，社会，文化，軍事등 모든 社会活動을 單一的인 独裁支配体系上 統轄하려는 共産主義 社会에 있어서는 共通的으로 찾아보는 現象인 것이며 일찍이 이는 쏘련 「스타린」体制로서 알려진 것이다. 勿論 本論에서는 生産体에 對한 管理側面만 考察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限定된 範囲에 있어서도 二重的管理組織体制는 確然한 것이고 그것은 金日成集団維持를 爲한 生産機能의 運営에 絶對한 必須不可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党階層組織의 영향이 間接的인 경우는 二重的管理体制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이미 共産党에 関한 많은 研究를 通해 알려져 있는바 党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와 같이 그 活動에 있어서 「맑스主義的」이고 「前衛的」이며 「核心的」이고 「領導的」이고 또 「組織的」인 同時에 「투쟁적」인 것이므로 内閣의 行政組織体系가 미치는 힘보다 더욱크고 直接的인 統制力을 生産体에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二重的管理体制를 充分히 構成시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金日成의 말은 이를 充分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即 金日成은 党의 使命에 関하여 "우리는 모든 分野에서 党籍 指導와 統制를 強化함으로서 党의 유일한 영도 밑에 全体国家 機関들과 勤労団体들이 党 政策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自己의 機能을 充分히 遂行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라고 言及하였는데 党은 北韓社会의 모든 問題에 関하여 唯一한 그리고 積極的인 命令監督機関이라는 것이다.

経済問題에 関하여는

"党 中央委員会 1954年3月 全員 会議와 1954年11月 및 1955年12月 全員会議以後 産業과 農村経済에 對하여 党 機関들의 指導에서는 党事業을 経済 事業과 결부시키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전환들이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経済建設은 行政機関의 事業이기 이전에 党의 重要問題가 되는 것이며, "모든(党의) 宣伝, 선동 事業은 반드시 経済事業과 밀접히 연결되어야 하며 사상事業의 결과는 経済建設에서의 具体的 実績에서 表示되어야 합니다" 라고 主張한 것이다.

이러한 党의 経済問題에 관한 直接関與는 中央党部事業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다. 勿論 中央党部는 内閣을 監督하는 것이므로 内閣의 機関 또는 그 地方行政機関을 通하여 目的을 達成할 수 있지만 直系 傘下機関을 動員하여 全国 各機関을 直接 監督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各級党은 該当地域 또는 機関의 経済事業에 直接的인 責任이 있음을 明確히 하였다.

例를 들면 金日成은 「三個年計劃」遂行期間에 各道의 党大会를 開催케 하고 自己가 直接나가서

"○○도에는 우리나라 経済発展의 重要한 밑천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党 中央委員会와 共和国 政府는 ○○道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큰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

이것은 ○○道党 団体가 工業을 発展시킬 重大한 責任을 党과 国家앞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意味합니다"라고 強調하는 것이다.

各級党이 責任을 지는 範囲는 経済政策의 樹立과 執行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고 具体的인 生産目標의 達成은 勿論 더 나아가서 生産管理方式의 優劣에도 미치는 것이다. 即 金日成은 "道党 団体는 党의 政策을 옳게 認識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現在 進行中에 있거나 또는 앞으로 豫見하고 있는 機械工場建設을 제때에 完成하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하며 지금 있는 機械工場들의 規模를 拡大하여 더 많은 品種을 生産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 하였으며 또 近者에 北韓의 工場들이 粗作으로 인하여 生産高가 甚히 파동을 그리고 있음에 비추어 「生産에서………파동성이 생기는 데는 반드시 일정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그 주되는 原因은 工業管理에서 工場 党委員会나 工場 指導部 各 職場別 部門別 党 委員会나 이 部門에 있는 지도 일군들이 組織事業을 잘 하지 못하는 데에 있읍니다」라고 하므로서 生産管理의 세밀한 部分까지 党의 指導를 指示하고 이를 公式化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徹頭徹尾한 二重的인 生産管理体制를 갖추는 것은 才1次的으로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모든 社会活動을 劃一的인 支配体系속에 統轄하려 할때 発生하는 것이나 다른 理由도 多少 発見되는 것이다.

첫째, 生産管理에 있어서 官僚主義의 抬頭에 對한 對備이다. 社会主義 経済体制에 있어서 官僚機構가 尨大하여 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事実이다. 따라서 経済行政 및 生産管理機構는

官僚的 非能率性을 띄게 되는 것이며 이를 除去하는 共産主義者들의 方式은 官僚体制에 對抗할 수 있거나 支配하는 全国的인 權力機構를 維持케하고 監視케 하는 것이다.

둘째는, 生産責任을 遂行하는 執行体系와는 完全히 独立된 全国監査体系를 維持할 必要性이다. 이는 共産主義者의 理論에 의하면 辯証法의 適用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보다는 事業評価를 最高政權者에 忠誠을 다하는 精鋭集団으로 하여금 担当케 하자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必要性은 事業評価는 評価基準에 따라 다르고 金日成은 党의 指示이외의 다른 基準을 容納치 않는 것이다.

세째, 生産管理의 二重的 体制는 生産活動의 理論과 実際, 表面과 内容 計劃과 結果間의 差異를 對外的으로는 陰蔽하면서 對内的으로는 必要한 措置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이다. 即 對外的으로 宣伝上 価値가 있는 経済計劃, 指示 計数등은 行政機関系統을 通하여 取扱케 하여 其他의 秘密을 要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그 内容 여하를 莫論하고 党의 機構体系를 通하여 執行한다는 것이다.

네째, 이미 千里馬運動에 関한 考察에 있어서 暗示된 바와 같이 北韓의 生産管理의 成功의 関鍵은 科学的인 管理方式보다 大衆的인 忠誠運動에 놓여있는데 忠誠運動은 心理作戦이며 이를 위하여 展開되는 煽動, 組織을 担当하는 것이 党이며 党은 目的遂行을 爲하여 生産体의 各部分에 完全히 浸透되어 있는 것이다. 即 党은 党員으로 하여금 北韓 全労動者 農民들과 起居를 같이 하게 하여 一

時도 쉴 사이 없는 洗腦工作을 하게 한다.

따라서 党의 末端機関인 党細胞는 하나의 빠짐없이 生産活動体에 発生하는 것이다.

다섯째, 北韓의 生産機関은 必要에 따라 生産機能以外에 다른 機能도 遂行하여야 한다. 党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政治行事 및 軍事行動에 機関員을 動員하여야 하며 여기에 工場管理 責任者의 故意 및 無故意의 妨害를 沮止하는 것이 党의 任務이며 이를 위하여 党은 모든 生産体에 浸透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生産管理에 二重的体制를 発生시키는 原因들은 生産管理面에서만 論한다면 確実히 極度의 集權管理를 施行하기 위한 具体的인 理由로도 간주되는 것이다. 더 正確히는 最高管理層의 集權的인 統率을 維持하면서 그로부터 発生하는 反政治的 反党的 非経済的 作用들을 또한 執權的 方式으로 除去하려고 하는데서 発生한 것이다. 分權管理를 施行하면 決定權限이 分散되고 따라서 官僚主義의 抬頭도 甚하지 않을 것이고 厖大한 独立된 内部監査機構도 必要없고 維持하여야 할 秘密도 적고 또한 忠誠運動도 전국적으로 展開할 必要도 없다. 그러니 集權管理를 発生시킨 根本理由(全般支配下에 完全独裁)는 生産能率向上보다 몇倍 重要視되는 金日成과 그가 組織한 北韓 政權体의 政治理念에서 出発하는 것이므로 党의 生産管理의 完全掌握은 不可避한 것이며 따라서 自然集權管理를 択하게 된 것이며 그로 因한 여러가지 発生하는 現象을 또한 完全統轄하기 위하여 党으로 하여금 細密한

組織과 手法을 가지고 生産体와 연관을 맺도록 하는 것이며 結果的으로 二重体制의 所産을 보게 된 것이다.

才二節 中央 및 地方生産管理機構

生産活動의 管理에 있어서 集権管理体制를 갖추고 있는 北韓에서 中央生産管理機構가 重要하리라는 것은 当然한 事実이다.

所謂 朝鮮労動党의 中央組織機構는 北韓의 唯一한 実権党으로 君臨하고 있으니 党規約 才17条를 볼것 같으면 党의 組織原則은 「民主主義 中央集権制」라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中央党의 指導機関(中央委員会, 中央政治委員会, 中央検閲委員会 및 中央検査委員会)은 党大会에서 選挙하고 일단 選挙가 되면 下級機関은 上級機関에 絶對服従한다는 것이다. 特히 「全体党組織은 党 中央委員会에 絶對服従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実際에 있어서 選挙는 有名無実이며 最高指揮者인 金日成과 그가 常時的인 召集하는 政治委員会(中央常任委員会에 該当)가 指示하는 대로 모든 党組織이 執行되는 것이다.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하는 中央政治委員会는 3~6個月 間에 一回씩 中央委員 全員会議를 召集하여 政治委員会의 政策決定을 討論케 하는 一面 組織委員会를 通하여 12部1局에 達하는 中央党部署를 두고 党事業을 展開한다.

中央党 部署는 所管事業에 関하여 該当 内閣部署를 直接 監督하

는 同時에 命令, 執權体系와 工作員派遣을 通하여 下級党組織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経済政策의 反映 및 生産管理의 運営이 重要한 事業内容으로 되어있으며 적어도 重工業部, 軽工業部 農業部, 水産部, 建設運輸部, 商業財政部의 六部는 直接的인 関係가 있으며 科学 学校教育部 및 宣伝煽動部는 補助的인 関係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各部에서는 部長이 있고 이들은 「部長会議」를 構成하여 各部間의 調整을 企図하고 있으며 部長 밑에는 局을 두고 있다. 이러한 中央党部의 「各部, 局」은 그에 對応하는 内閣의 各委員会 및 直属機関을 指導와 감시의 對象으로 包含시키며 이 指導와 監視는 最高人民会議에 内閣의 各委員会의 事業에 對応하는 常任分科委員会가 設置되어 있다는 事情과 結附해 볼때에 一党独裁下에서 차지하는 그 機能은 더욱 重要時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組織機構를 가진 所謂 朝鮮労働党은 随時 党大会, 그리고 中央委員会 全員会議等을 開催하고 對内外的으로 生産活動에 関한 党의 方針 및 政策을 示威한다.

党大会는 党이 発足한 以来로 才4次에 걸쳐 開催되었는데 前2次는 所謂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을 樹立하기 前이었으며 後2次는 1956年4月23日~30日과 1961年9月11日~18日間에 平壌에서 開催되었는데 前者인 才3次 党大会에서는 「才1次 5個年計劃」 그리고 後者인 才4次 党大会에서는 「経済発展七個年計劃」이 発表된 것이다.

戰後 人民経済復旧三個年計劃」은 1953年8月5日에 開催된 党中央委員会 才六次 全員会議에서 決定発表되었는데 이때는 停戰直後이었던 까닭으로 党大会를 召集할 모든 餘裕가 없었던 까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中央委員会 全員会議는 1年에 2~3回에 걸쳐 開催되는 것으로서 討議内容에 있어서는 重要経済 또는 生産管理問題가 包含되어 있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는 것이다. 党에서 決定한 事実은 政務院(内閣)으로 하여금 執行하도록 하는 것인데 政務院은 行政技術을 専門職으로 삼는 관료들의 集合体라고 볼 수 있다.

政務院 常務会議는 総理와 6名의 副総理 및 総理가 任命하는 政務員으로 構成한다.

여기에서는 重要案件이 決定되고 政務院 決定으로서 発表된다. 必要에 따라서는 政務員 全員으로 全員会議가 開催되어 同一한 機能을 発揮하는 것이다.

그러나 党에 있어서는 이들의 会議自体가 実質的으로 要式行爲에 불과하고 形式에 不過한 것이다. 生産管理面에서 政務院機構를 区分하면 計劃과 調整을 担当하는 7個委員会와 狭意의 生産管理를 直接 遂行하는 15個部가 있다. 7個 委員会는 計劃을 担当하는 国家計劃委員会(綜合計劃)와 調整을 맡는 重工業委員会 機械工業委員会 軽工業委員会, 農業委員会, 交通通信委員会, 人民奉仕委員会로 나누어져 있다. 生産管理의 15個部에서는 重工業分野에 属하는 船舶機械工業部와 化学工業部가 있고 才1次 産業에 属하는 水産部가

있으며 才3次 産業에 屬하는 貿易部, 財政部, 對外経済部와 建設業에 屬하는 建材工業部 建設部가 있고 人的資源과 人民厚生関係를 관장하는 人民武力部, 外交部, 社会安全部, 教育部, 文化芸術部, 勞動行政部 保健部의 7個部가 있다.

이상과 같이 中央生産管理機構로서 北韓의 政務院은 生産管理爲主로 編成이 되어 있는 것이다.

勿論 党의 機構도 그러 하였지만 政務院의 各部는 工業과 経済関係의 部가 圧倒的이다. 軽工業과 農業을 除外한 모든 生産分野의 管理는 政務院에서 直接管理하는 集権管理体制를 取하고 있다. 이러한 集権管理는 政策面에서 뿐만 아니라 具体的인 内容에도 이르고 있는 것이다. 集権管理와 関聯하여 上部機関과 複雑性을 덜하기 위하여 部를 細分化하여 놓았다. 또한 同時에 副総理의 数를 6人으로 하고 여기에 経済関係人事를 多数 配置하여 놓았다. 따라서 部級에서는 若干의 分権化를 試図하였으나 部의 上級機関인 政務院常務会議에서 再次 集権管理를 企図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政務院의 各委員会와 各部는 党의 政策을 어김없이 反映하도록 措置되어 있고 人事面에서 본다고 해서 国家主席 金日成은 党의 最高責任者이며 副主席 1人은 党中央人民委員会 正委員이며 나머지 1人은 候補委員이다. 따라서 政務院은 中央人民会議 執行機関이며 党의 執行機関인 것이다.

北韓의 生産管理体制의 出現은 어떠한 一定한 理論에 立脚한 것이 아니고 完全히 施行錯誤的인 과정을 通해 到達한 것이다. 이것

을 立証하는 것으로 北韓은 才1次 金日成 内閣과 3次 金日成内閣 사이에서도 無慮 数十件에 達하는 経済機構 改編이 있을 뿐더러 새로이 大改編 組織한 国家主席制度와 政務院制度에는 重工業部門에서 人民資源部門으로의 移動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中央生產管理의 問題의 一環으로서 添加되어야 할 内容에는 또한 中央幹部의 「現場指導」와 地方機関의 일꾼들의 熱誠者大会의 開催가 있는 것이다.

前者는 金日成을 비롯한 党首脳들의 地方視察을 兼한 現場督励로서 「才1次 5個年計劃」이 始作한 以来로 每年 継続되고 있는 것으로, 北韓生産管理의 커다란 一面을 担当하고 있는 것이다. 後者는 煽動의 原理를 利用한 大衆動員事業으로서 亦是 每年 継続되어오는 것으로서 그 代表的인 形態는 「千里馬運動熱誠者大会」인 것이다.

이와 같은 中央管理機構의 活動은 中央官僚의 指揮, 督励에 便宜를 図謀케 하는 同時에 下部에 党의 意思를 直接 伝達하여 官僚機構의 中間指導者들에게 圧力을 加하는 効果를 나타내게 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또한 北韓에 金日成政権이 継続하는 限 이러한 生産管理의 側面的 攻撃의 必要性은 継続할 것이다.

地方에 있어서의 生産管理機構는 特別市, 道人民委員会가 中心이 되며 活動은 中央管理機構의 絶對的인 支配下에 展開되는 것이다.

北韓의 地方生産管理機構로서 特別市, 道級人民委員会의 組織機構上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広義로는 地方行政 狭義로는 地方生産管理가 一元化되어 있다. 即, 모든 種類의 地方機関은 治安関係를 除外하고 人民委員의 一部署로서 統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人民의 生活이 党의 支配하는 單一組織体系에 完全吸収当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形式에 있어서는 人民委員会는 人民会議의 休会中에 있어서 그 任務를 遂行하기 위한 執行機関에 불과하며 中央과의 관계는 人民会議가 政務院에 服従하게 되어 있으나 実際에 있어서는 人民委員会가 政務院에 直結되어 있어 中央集権体制를 強化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人民委員会의 部署는 委員会 處, 部 그리고 局으로 3区分되어 있으며 委員会는 政務院의 委員会와 마찬가지로 計劃 및 調整을 맡고 部는 政務院의 直属局과 마찬가지로 人民委員会의 内部的인 事務를 取扱, 그리고 處와 局은 地方行政業務의 性格과 規模에 따라 決定된 各各의 分野로 나눠진 活動을 展開하는 部局이다.

네째, 政務院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生産管理部署가 非生産管理部署에 比해 圧倒的으로 많다. 그러나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重要工場 및 国家直営事業은 地方行政에 包含되지 않으므로 生産管理의 重要度에 있어서는 顕著히 低下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特別市 道級에 있어서 強調되고 있는 生産管理部門은 軽工業과 農業이 되고 있다. 軽工業을 위해서는 政務院의 軽工業委

員会에 該当되는 것은 없어지고 工業経営局과 産業管理局이 있고 또 農業과 其他 才1次産業을 위해서는 農村建設局 農業技術局, 農機管理局, 土地建設収買局, 水産管理局, 그리고 農村経理委員会가 있는 것이다.

여섯번째, 特別市, 道級에 있어서 商業管理가 重要視되어 있지 않고 있음이 発見되었다.

일곱번째, 農業管理에 있어서는 官僚主義的特色을 가진 局과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地方自治의 特色을 가진 한 農村経営委員会와의 二重組織을 마련하고 있다. 前者는 後者를 支援하고 後者는 農村에 있는 下級機関을 指揮 監督하며 道営으로 되어 있는 国家所有의 農, 牧場 또는 果樹園등을 直接 経営하고 있는 것이다.

여덟번째, 所謂 「基本建設」에 있어서는 特別市, 道単位로 計劃을 進行하는 것이 強調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都市建設委員会, 施設管理局, 建設管理局 및 住宅管理局 등의 存在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아홉번째, 経済計劃作成에 있어서는 特別市 道別의 計劃을 作成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独自性이 없는 国家計劃의 一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地方의 固有한 発展이란 中央에서 許容하는 範囲에 限定하는 것이다.

열번째, 現在, 北韓에는 2個의 特別市와 9個의 道(平安南北, 咸鏡南北, 慈江, 両江, 黃海南北, 江原道가 있으며 따라서 特別市 道級의 生産管理機構도 巨大한 것이며 이는 集団管理의 目的 遂行에

서 우러나는 措置라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特別市, 道級의 生産管理의 特徵을 要訳해서 말한다면 重工業 또는 基幹産業을 除外한 軽工業 또는 才一次産業의 管理가 地方에서 強調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一部産業管理의 執行面에서의 分散化는 괴뢰政権樹立始初부터 企図된 것은 아니였으며 大体的으로 「才1次5個年計劃」의 施行途中에 일어난 것이다. 이에 関하여 金日成은 "工業에 對한 国家機関의 지도를 접근시키며 指導事業을 具体的으로 기동성 있게 進行하기 위하여서는 中央 政務院의 部, 局의 부담을 덜어주고 地方의 工業管理機構를 経済的으로 強化하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이로부터 우리党은 종전에 中央 政務院의 部, 局들이 直接管理하던 적지 않은 공업기업소들을 지방에 이관하고 道経済委員会를 創設하여 地方工業과 地方建設을 管理하게 하였읍니다. ………工業管理体系의 이와같은 개편은 工業管理에서 中央執權的인 유일적 지도를 強化하게 하는 同時에 地方의 機能을 제고하고 民主主義를 더욱 확대하였읍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分散化의 目的이 分權管理로의 移行에 있는 것이 아니고 「中央執權的인 唯一的」管理 즉 集權管理를 強化하기 위하여 그 下部機関의 機能을 整備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地方의 生産管理의 機能遂行에 있어서 党의 支配가 全的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再言할 必要가 없다. 따라서 地方의 生産管理機構가 尨大하고 機能이 強化되었다고 하는 것은 分權管理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中央의 決定과 目的을 어김없

이 地方에 反映시키고자 하기 위한 行政機能의 強化인 것이며 이는 共産主義国家의 「全一的支配」의 原則인 同時에 金日成哲学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北韓은 蘇聯이라는 달리 地理的으로 본 管理規模가 적으므로 蘇聯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分権管理의 必要性을 痛感하지 않을 것이라고 推定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産業化의 段階도 高度의 分権管理体制를 要求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特別市, 道級의 下部에는 市, 郡人民委員会가 있고 또 그 밑에는 里人民委員会가 있다.

그러나 市, 郡, 人民委員会以下에 이르러서는 協同 또는 集団形式을 択한 農業協同組合 또는 零細規模의 手工業協同組合의 管理가 主要任務로 登場하는 것이며 其他의 問題에 関하여는 上級機関의 「工作員」들에 依하여 日常的인 「機関, 指導」가 進行되고 個個実務에 對한 監督이 이루워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農業協同組合에 関한 郡級 또는 里級의 人民委員会의 機能에 對하여는 다음에서 論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第 三 章　北韓의 生産管理

—現場管理

第三章 北韓의 生產現場 管理

第一節 工業生產管理

北韓에 있어서 工業生產의 単位体는 「工業企業所」라고 総称하고 있으며 工業企業所는 国家所有로서 政務院의 管理로 되어 있는 大規模의 中央工業企業所와 特別市, 道級의 人民委員会에서 経営하고 있는 小規模의 地方工業企業所와 그리고 零細規模이면서 協同形式을 取하고 있는 「生產協同組合」의 세가지로 区分된다. 大規模의 中央企業所는 業種에 따라 鉱山, 工場, 発電所, 事業所, 経営所등의 여러가지 名称으로 불리어 지고 있으나 生產管理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工場으로 通称되고 있으며 또한 大規模인 国営工場을 中心으로 論議되고 있는 것이다.

(1) 国営工場의 組織機構

大規模 国営工場의 内部組織編成은 많은 試行錯誤的過程을 겪어서 最近에 와서는 大体的으로 다음과 같은 基本形態로 되어 있다. 即 工場単位로 볼때는 道級党委員会의 直接監督下에 있는 「工場党委員会」를 最高機関으로 하고 또 幹部級으로 構成된 「工場党執行委員会」의 支配下에 党機構와 生產機構를 併立시키고 各各의 部署는 党委員長과 支配人이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工場의 組織編成은 이미 論한 바와 같이 生產管理가 最末段인 現場管理線부터 政権機関인 党의 支配下에 完全히 놓여 있음을 立証하는 것이지만 北韓에 있어서는 最近에 나타난 劃期的인

変化인 것이다.

즉, 3個年計劃 期間은 勿論 「5個年計劃」 期間 全般, 그리고 「7個年計劃」期間의 初期에 있어서는 党의 支配系統과 生産管理系統의 関係는 表面化 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며 党委員長이 工場責任者格인 副支配人을 兼하게 하는 것을 表面化시킬 따름이었다.

따라서 工場은 完全히 命令単一化의 原則에 違背되어 生産機能遂行에 많은 차질을 発生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北韓最高権力者는 이 問題解決에 多年間 尽力한 것이나 결과는 工場의 最高機関을 管理機構가 아닌 権利機構로 하고 그 밑에서 政治支配와 管理系統을 併立시키는 形態로 낙착시킨 것이다.

이 문제에 関하여 北韓의 生産管理의 편람에 該当하는 경제지식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企業所 企業体系가 확고한 당적 지도체제로 되었다.

지난 시기의 관리기구는 주로 행정 기술적 지도 체계로 되어 있었고 党的 지도 체계가 기구표에 명백히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大規模 공업 企業所들의 초급党 委員会의 직능을 강화 하였으며 그 기구를 더욱 拡張하였고 직접, 도당위원회의 지도를 받게끔 체계를 개편하였다.

따라서 党의 支配는 圧倒的이며 絶対的인 것이다.

이러한 체계下에서는 国営工場의 最高管理機能은 党組織이 掌握하는 것이며 支配人은 部下의 活動을 指揮監督하는 中間管理層의 機能을 発揮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党機構系統에 最高管理機能에 属하는 여러 参謀部署가 없는 理由는 最高管理機能의 特徵인 意思決定은 工場自体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党의 中央機関에서 指示 下達되는 까닭이며 党은 이를 保障하기 위한 政治事業을 展開하기 위한 部署만을 具備하는 것에 満足하는 까닭이다.

具体的으로 生產計劃은 中央党部에서 決定되고 工場党은 이를 受領하여 支配人에 指示下達하고 監視하는 同時에 工場労動者를 宣伝煽動하여 呼応하게 한다. 그러면 支配人은 中央의 援助가 必要한 경우는 軽工業部에서 措置를 받고 自体的으로 解決할 것을 산하 組織部署를 通하여 解決토록 하는 것이다.

支配人은 3名의 副支配人과 1名의 技師長에 의하여 補佐를 받으며 監査機能을 遂行하는 検閲部를 直接 指揮한다. 副支配人들의 業務分担은 完全히 管理原則에 立脚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北韓経済의 社会主義的 性格에 起因하는 것이다.

첫째 後方供給 副支配人이 管轄하고 있는 業務者는 労動者의 活動全般에 관한 문제로서 労動者를 時間制를 無視하는 労動에 従事시키고 있는데서 必要하게 된 것이다.

둘째, 業務副支配人은 販売 調達業務를 管掌하는 専門職이라는 것보다는 工場内外의 物資移動을 責任맡은 部署로서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運輸部를 包含시키고 있는 것이다.

計劃経済下에서의 資材調達과 製品販売問題는 行政処理에 不過하다.

세째, 行政副支配人의 担当業務는 労務管理에 해당되는 것이나 여기에서 建設部가 예속되어 있는 곳은 建設職場과 作業班은 生産職場, 作業班의 人員으로 構成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作業과 作業사이 또는 作業遊休時는 建設職場에 配置되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事実이다.

마지막으로 一般的으로 生産管理의 検査는 製品検査에 限定되는 것이나 北韓에서는 業務全般에 걸친 検査가 施行되고 있으며 이를 管掌하기 위하여 검열부가 支配人 直属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一見하여 尨大하고 専門的인 複雑한 組織機構를 갖는 것 같이 보이지만 党組織을 包含하여 3分의2以上이 「社会主義的」 또는 共産主義独裁式 生産形態로 因해 必要한 것이며 生産과 直接関聯이 있다고 看做되는 部署는 比較的 簡単한 것이라는 結論을 맺게 한다.

(2) 独立採算制의 運営

全体的으로 社会主義性格(集権管理)을 띠면서도 여기에서 오는 弊端을 맏기 위하여 内容的으로 自由主義原則을 生産管理에 導入한 여러가지 例中에 으뜸가는 것이 「独立採算制」라는 것이 있으며 北韓의 一部 工業所들은 이 制度下에서 움직이도록 規定되고 있는 것이다. 独立採算制는 原来 蘇聯에서의 始作과 더불어 漸次 그 妥当性이 立証되는 것으로서 自由主義企業에 있어서 事業部制度와 同一한 것이다.

簡略히 요약하면 「独立採算制」는 同一支配体系下에 있는 各個体에 擬制的인 自由환경을 造成하여 줌으로서 各 個体의 活動에 創意性과 自律性을 発揮케 하여 全体的으로 가일층의 能率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制度인데 北韓은 全国을 同一支配体系로 보고 企業所를 개체로 하여 本制度를 導入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의 生産管理에 本制度가 導入되어 어느 程度의 効果를 올리고 있는지는 실제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測定이 不可能하나 여기에서 成文上의 制度만을 分析한다.

「경제지식」은 独立採算制의 目的에 関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独立 採算制란 社会主義 企業所가 資産을 가장 合理的으로 이용하는 条件下에서 国家計劃을 完遂 및 초과 完遂하며 自体의 収入으로 支出을 補償할 뿐만 아니라 높은 収益性을 보장하는 가장 선진적인 管理 運営을 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 独立採算制는 国家가 賦課한 生産量을 自力으로 超過達成하는 具体的인 責任制度로 導入된 것이다.

그러한 理由로 独立採算制는 工業 企業所들에서 厳格한 절약제도를 確立하며 国家計劃을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完遂 및 超過完遂하게 하는 強力한 手段으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綜合的으로 検討하건대 北韓의 独立採算制는 各 工場에게 自律性을 賦与하기 위한 方案은 결코 아니며 다만 統制에 있어서 原価計算制度를 導入시키고 成果가 높은 企業所에 対하여

多少의 물질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理由로서 첫째, 企業所의 対外去来関係는 国家의 監督과 干涉을 벗어날 수 없으며 販売에 있어서 利潤最大를 위한 努力의 여지가 전무하며 모든 計劃樹立과 자금운영은 事前과 事後에 국가의 承認을 要하고 있다는 点을 들을 수가 있다.

따라서 独立採算制下에서 利潤의 増大를 보았다 하면 그것은 国家의 必要性, 価格의 策定의 固定性, 原価計算의 人為性등에서 오는 造作이라고 간주될 수 밖에 없고 참다운 剰餘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事実上 北韓에서는 社会全体를 볼때, 生産性増加 또는 動力投入을 포함한 원가 저하로 인하여 참다운 잉여의 증가보다는 物質的 生産量의 絶対増加가 全的으로 重要視되고 있으므로 利潤極大化에 해당하는 個個企業所의 独立採算制를 通한 企業収益増加는 그다지 興味있는 問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国家는 価格操作을 通해 얼마든지 利潤을 造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結論的으로 北韓의 独立採算制는 무엇보다도 高次的인 統制手段으로서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労動報酬의 理論과 実際

오늘날 共産主義를 標傚한 国家들이 共産主義가 아니고 社会主義段階를 걷고 있다고 自認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理由는 労動에 对한 報酬가 共産主義理念에 立脚하여 實施되지 못하는 까닭

이다.

勿論 北韓의 政權者들도 社会主義의 過程에 処해 있다고 公言하고 있으므로 能力에 따른 労動提供, 必要에 따른 労動報酬라고 말할 수 있는 共産主義 労動報酬라는 所謂 社会主義原則에 立脚한 労動報酬制를 実施하고 있는 것이다.

個人보다 全体人民, 家庭보다 国家를 優位에 두는 理論에 立脚한 北韓이 個人에 対한 労動報酬에 非常한 関心을 갖고 있다면 常識的으로 首肯하기가 困難한 것이지만 적어도 文献上으로는 自由主義企業社会에 比하여 遜色없을 程度로 細心한 注意를 기울이고 있다.

即, 企業所에 対한 党의 支配体制가 完成을 보지 못하였던 「3個年計劃」의 初期, 金日成은 北韓 全域에 걸쳐 과반수이상의 労動者가 한 곳에 定着치 못하고 流動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그 原因이 大部分 「労動 賃金의 옳지 못한 조직, 不合理한 노임표, 임금支払에서의 平均主義」에 있다고 主張하게 된 以後로 北韓에는 労動報酬에 관한 여러가지 積極的이고 「合理的」인 方案이 試図된 것이라고 한다.

労動에 対한 報酬가 無作定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어느 人間社会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으나 社会主義国家에 있어서는 그것이 国家에서 規定한 目的에 労動力 動員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로 되는 것이라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으며 北韓의 경우도 例外가 될 수 없는 것이다.

金日成은 「労動賃金의 제정은 労動의 질과 양에 依한 支払原則

에 엄격히 立脚하여야 하며 労動者 事務員들이 자기 労動의 結果에 대하여 절실한 物質的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労動의 質과 量의 差異에 다른 賃金差를 正確히 하고 都給制와 資金支払制를 아울러 実施하도록 指示하였다. 그리하여 北韓에는 오늘날 労動이 基準化 되어 있고 賃金基準額이 策定되고 定額労動賃金制, 都給労動賃金制, 그리고 賞金制 등의 労動報酬制度가 있다.

이러한 北韓의 労動報酬制度는 勿論 쏘련의 制度를 模倣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内容을 概略하컨 다음과 같다. 労動의 基準化는 時間研究를 通하여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労動基準量」을 決定하는 것이고, 都給労動報酬制의 경우 賃金算出의 根拠로 사용된다.

定額労動賃金制는 各 産業에 対하여 賃金 基準額을 定하고 또 産業内의 労動을 一定한 数의 技能等級으로 区分하고 各 等級에 賃金係数를 附与하고 基準資金, 賃金係数 및 労動時間에 따라 賃金計算을 하는 것이다.

都級労動賃金制度는 賃金計算의 単位가 「都給単価」인데 이 都給単価는 「該当作業의 標準 공수에 対한 일 賃金基準額」을 「일 작업 기순한」으로 나눈것이며 따라서 賃金은 都給単価를 生産量으로 合한 것이다.

都給労動賃金制는 現在 北韓에서 가장 普遍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하며 따라서 「単一都給労動賃金制」, 「累進都給労動賃金制」, 「個人

都給労動賃金制」,「班都給労動賃金制」 그리고 「工数都給労動賃金制」로 細分되고 있다.

賞金制란 生産을 超過達成하였을때 個人 또는 集団에 支払되는 賞与金으로서 「計劃超過賞与金制」「質提高賞金制」「設備利用率提高賞金制」「作業班優待制」 等이 있다.

作業班優待制란 것은 作業班을 한단위로 하여 国家가 指示한 計劃의 九割을 초과 하면 都給基本賃金以外에 「優待基準額」을 追加하여 支払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単純한 観察을 通해서 본다면 北韓의 労動報酬制度가 첫째 党의 目的도 達成하여 주는 同時, 둘째, 労動者의 収入을 増加시켜 주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지 모르나 첫째의 경우는 事実이라 할지라도 둘째의 境遇는 成立되지 않는 것이다.

그 理由로서는 다음 몇가지 点을 指摘할 수가 있다.

④ 労動生産性의 向上 運動

生産活動의 能率을 綜合的으로 把握하는 概念으로서 「労動生産性」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簡単히 説明하면 単位時間当 投入된 労動量에 対한 生産量의 比率을 가리키는 것이다.

労動生産性은 自由主義企業体制下에서는 社会的으로 生産水準向上을 뒷받침하는 労動価値의 上昇指標로서, 그리고 企業所에 있어서는 労動者의 賃金引上의 指標로서 意義가 重要視되는 것이다. 社会主義体制下에서 労動生産이 綜合的指標로서 使用되는 것은 労動의 意義를 重要視 하여서가 아니라 利潤이라는 経済的 評価를 実質的으로

할 수 없는 計劃経済体制下에서는 実質的으로 表示될 수 있는 指標中 가장 綜合的인 것이 労動生産性인 까닭이다.

더구나 正義上 「完全雇傭」을 免할 수 없고 또 거기에 人的資源이 質的, 量的으로 不足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労動生産性을 中心으로 하는 生産管理活動의 調整이라는 것은 더욱 意義가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北韓에 있어서 労動生産性을 어느 程度 重要視하며 그것이 経済計劃의 作成 또는 諸般 生産 管理活動에 주는 영향이 如何한 것인지는 正確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것을 問題視 하고 있고 向上을 위한 一聯의 措置를 講究하고 있는 것만은 事実인것 같다.

그 例로서 「労動生産能率」에 関한 指数가 発表되고 있고 「그의 제고 방도」가 文献上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経済知識」은 労動生産性의 向上이 가지는 意義가 첫째 「社会主義的 工業化를 遂行하는 行政에서 제기되는 긴장성을 풀고 工業生産의 높은 성장속도를 계속 연장하며, 둘째 「原価 低下의 企業所의 収益性 제고를 위한 重要한 방도로」 삼고, 세째로 「国民所得의 부단한 성장을 保障함으로서 労動者, 事務員들의 実質賃金을 부단히 높이는 必須的 存在」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資本主義에 対한 社会主義 종국적 승리를 保障」한다는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풀이하면 労動生産性은 ⑴工業化의 測定値가 되고 ⑵企業所의 利潤아닌 収益性을 높이고 ⑶労動賃金의 水準을 策定하는 基準

이 되고 그리고 ④社会主義가 資本主義에 관해 優秀하다는 具体的 內容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労動生産性은 確実히 自由主義体制下에서 보다 그 意義가 多角的이며 深刻한 것이라 할 것이다.

「経済知識은 계속하여 労動生産性을 향상하는 方法으로서 ⑴先進技術의 導入과 機械設備의 利用率의 向上 ⑵先進的 生産組織의 導入과 労動組織의 合理化 ⑶労動者들의 文化 技術水準의 向上 ⑷労動者들의 先進的 思想, 意識의 向上, 그리고 ⑸社会主義 競争運動등의 다섯가지를 提示하여 說明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⑴과 ⑵ 그리고 ⑶의 方法은 自由主義企業에서도 크게 問題視하는 것으로서 北韓経済界의 特徵으로 看做할 수 없으며 다만 ④와 ⑤는 社会主義体制下 또는 北韓의 金日成의 体制下에서 適用될 수 있는 方法인 것이다.

第二節 農業生産의 管理

쏘련을 為始한 共産主義를 標榜한 푸로레타리아 独裁国家가 農業生産을 協同化 方式으로 遂行하여 나가는 것은 既知의 事実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生産目的을 達成하는 것 이외에 全社会를 完全하고 単一한 支配体系속에 예속시키려는 政治的 目的의 達成도 크게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節에서는 北韓에 있어서 政治的 目的을 遂行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農業生産의 管理問題는 「度外視하고 経済的 生産分野로

서의 農業生産의 現場管理를 論하기로 한다.

北韓에는 지금 農業生産의 単位를 総括하여 「농업기업소」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을 国家의 中央機関에서 直接管理하는 国家農場과 地方機関에서 統制하고 形式的이나마 農民들의 協動式管理参加를 하도록 되어 있는 協動農場 또는 協動組合으로 二区分된다.

北韓에서는 이와 같이 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国家農場은 소속기관의 差異에 따라 다시 内閣機関인 農業委員会에 直属된 国営農場과 道農村経済委員会에 属한 国営農場으로 区分되고 規模의 차이에 따라 行政単位인 郡과 同一한 地理的 区分을 가진 綜合農場과 그 以下의 地理的 区分을 가진 一般国家農場으로 区分되고 있다.

또한 主生産任品目에 따라 農場, 牧場, 果樹農場, 잠업농장, 種畜場, 원잠제조소 등으로 区分되어 있기도 하여 이 中에서 가장 많은 形態는 農場과 牧場이 結合된 農牧場이라고 한다.

여기에 国家所有로 되고 있으나 郡単位의 協同農場経営委員会에서 管理하고 있는 農機械作業所가 있다.

(1) 国家農牧場의 管理

国家의 中央機関인 内閣의 農業委員会에서 直接管理하는 農牧場은 事実上 生産을 直接 遂行하는 管理単位라고 하기보다는 生産을 위하여 補助的인 役割을 担当하는 農事試験場이라고 하는 것이 妥当하다.

즉 国家農牧場은 「축산물, 과실, 채소,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무단히 증대시킴에 있어서 先驅者的 役割을 遂行」하는 것인데 그러하기 위해서 「協同農場에 優良種畜, 종자, 雜種 및 苗木등을 供給함으로써 協同農場의 生産 発展을 促進」하고 다음으로 「農業生産의 重要한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国家農牧場이 담당한 生産種類는 畜産物, 채소, 原実, 알곡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牧畜과 特殊農作性을 올리는 農経方式을 研究하여 農業協同組合의 生産量增加에 拍車를 加하는 根拠를 마련 하는 것이다.

国家農牧場의 特徵은 農業生産에 前節에서 본 工業 企業所의 管理方案의 一部를 導入하는데 있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이에 関한 具体的인 内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⑴「国家 農牧場의 指導 体系에는 지배인, 技師長, 부지배인이 있으며 그 밑에 관리 부서들이 있다.

지배인은 企業所 指導 성원들과 ………経済的 活動과 함께 行政的 活動을 遂行한다.

⑵独立採算制를 実施하고 있으며 그 運営方式은 工業企業所의 경우와 같다.

⑶労動報酬의 形態는 労賃이며 労賃支払에 있어서는 技能量에 따라 作業等級制 및 生産量에 따른 成果給制를 採択하고 있다.

⑷労動生産性을 向上시키는데 있어서 工業企業所의 경우와 同一한 方法을 쓰고 있는 것이다.

⑸生産의 各 側面에 있어서 철저한 計劃을 樹立하도록 되어 있

다.

따라서 国家農牧場은 農業生産의 重要한 機能인 農業技術의 開発과 国家에서 重要하다고 認定한 농업생산의 一部를 中央機関에서 直接 감독 指揮함으로서 農産物生産計劃을 達成하는 生産単位이며 여기에 必然的으로 発生하고 있는 것은 官僚的인 管理方式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生産手段이라기 보다는 理念的인 共同生活体인 綜合農牧場은 그다지 発展시킬 意義가 없으며 実際에 있어서도 二個郡에서 実験的으로 実施되어 본 일이 있었을 뿐인 것이다.

(2)農機械作業所의 管理

農機械作業所는 蘇聯에서 模倣한 農業生産管理의 特徵의 하나인데 農村의 労動力不足을 解決하는 方法으로서 「트랙터」를 中心으로 한 動力機械를 農村에 効果的으로 導入하기 위하여 設置된 機関이라고 할 수 있다.

農機械作業所의 所属은 農機械가 国家所有로 되어 있으므로 国家機関으로 分類되고 있는데 作業地가 分散되어 있고 中央과의 距離가 多大함으로 郡単位의 協同組合経営委員会가 그 管理에 臨하고 있고 그럼으로 因하여 国家農牧場 또는 農業協同組合의 管理形式과 多少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農機械가 協同組合 또는 必要한 生産体에 直接 売渡 또는 貸与되어 있지않은 理由로서는 「트랙터」가 主要内容으로 되어 있는 農機械의 대수가 充分치 않다는 것과 또 各 協同.組合의 規模가

「트랙터」를 常備할 程度로 크지 못하다는 点을 생각할 수 있다.

如何間에 農業生産에 必要한 動力을 機械化함에 있어서 北韓의 農村実情은 이것을 特殊管理体制下에 둘 必要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点에 関하여 「経済知識」은 「農村경리의 技術的 改造와 그의 発展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農村에 派遣된 労動계급의 集団으로서 労動階級의 영도적 역할을 제고」하며 「공업과 농업의 生産的 関係를 強化 発展」시키는 것이 農機械作業所의 基本使命이라고 하고있지만 이것은 무슨 管理内容이고 간에 이를 意義깊게 하려는 誇張 解釈인 것이다. 農機械作業所의 任務는 「트랙터」作業班을 編成하고 所管地域内 農業協同組合에 出張하여 耕作을 비롯한 여러가지 作業을 遂行하여 주고 収益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①「트랙터」와 其他 農機械의 利用率과 稼動率을 높이고 ②作業種類와 作業量을 拡大하고 ③가장 能率的인 組織編成을 갖추며 ④技術 整備水準을 높이고 ⑤独立採算制를 施行하고, 그리고 ⑥새로운 労賃 制度를 適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農機械作業所의 特徴은 実質的으로는 「트랙터」 作業班을 中心으로 하여 管理方式이 展開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作業計劃, 能率計算, 独立採算計算, 労賃支払이 比較的 人員数가 적은 作業班単位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特히 労賃支払에 있어서는 作業班員은 「農機械作業所로 부터는 作業量에 따른

成果金 賃金을 받는 同時에………農業協同組合으로부터 労動日数에 따르는………分配에 参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農機械作業所는 国家가 所有하고 国家機関인 郡에서 管理하면서 運営経費의 負担을 農業協同組合에 시키는 形態라고 할 수 있다.

労動協同組合이 負担하는 経費는 비단 作業班員에게 支払되는 分配분만이 아니고 終局은 農機械作業所의 모든 経営一切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農業協同組合은 農機械作業所에 농기계작업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까닭이다.

農機械作業所의 収益은 非但 経費만을 充当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所謂 収益을 発生하여 그 大部分을 国家에 納付토록 調節되고 있다.

即 収益은 作業量과 国家에서 定한 率에 따라 받는 農機械作業料로 構成되는데 現金 또는 벼, 옥수수의 現物로 이루어지며 現物의 경우는 収買糧政機関에서 現金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農機械作業料가 現金化한 額数는 農機械作業所가 自体運営을 위하여 処分할 수 있는 額보다 항시 많게 되어 있고 그 差額은 無条件 国庫에 納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管理方式은 国家가 農産物을 税金賦課 또는 直接買収以外의 形式으로 確保하는 方法으로 農機械作業所를 国家에서 運営하는 것이라고 断定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 国家가 차지하는 것은 前記 農機械作業料와 内部決裁価格으

外四

로, 評価된 作業料의 収益에서 経費를 控除한 企業利益金의 98 % 도 包含된다.

計劃量으로 초과한 部分에 対해서도 75 %는 国家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国家納入이 과다한 反面은 労動者의 分配에 使用되는 基金의 과소를 말하는 것이다.

즉 計劃未達時는 収益中 保留가 許容된 部分의 경우 2 %, 計劃量을 초과한 部分에 対해서는 25 %를 基金으로 積立할 수 있는데 基金総額은 労賃総額의 12 %를 초과할 수 없고 또 計劃原価를 低下하였을 때에 限해서 積立된 基金의 40 %를 労動者에 対한 賃金으로 充当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第3節 商業 生産 管理

社会主義体制를 갖추는데 있어서 가장 些少하고도 細密한 計劃의 樹立을 必要로 하여 많은 国家의 人的資源이 投入되면서도 所期의 目的達成이 比較的 困難하고 効果的이 아닌 部門은 財貨 및 用役의 流通이다.

財貨, 用役의 流通은 生産과 消費에 있어서 必須不可缺한 経済機能임은 再言의 必要가 없는 바이지만 生産, 消費에 있어서 財貨, 用役의 効用을 最大로 하자면 必要한 生産者 또는 消費者에 必要한 日時에 供給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流通部門의 計劃과 管理는 経済成長이 되면 될수록 財貨, 用役의 種類와 生産者, 消費者의 数가 増加하여 幾何級数的으로 어

려워지는 것이며 経済水準이 一定線을 넘어서면 人間의 智能으로서는 完全한 計劃樹立이 도저히 不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大量計算을 高速度로 하는 電子計算機도 한 経済界의 모든 財貨, 用役의 「同時 需給均衡算定」을 解決하여 주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輸送計劃, 日程表까지 正確히 作成하여야 한다고 보면 流通部門의 計劃化란 天文学計算의 程度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与件下에서 社会主義経済는 두가지 政策的方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需要를 数量과 種類에 있어서 共히 供給에 맞도록 操作하는 것과, 둘째는 流通部門의 部分的 自由化인 것이다. 前者는 流通部門을 完全国家管理에 두는 것이며 比較的 経済活動, 特히 消費活動의 水準이 낮을때 適用될 수 있고 이로서 일단은 社会主義体制가 維持되는 것이라고 看做할 수 있다.

그러나 後者의 境遇는 先進社会主義国家에서 択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곧 社会主義体制로 부터의 後退를 意味하는 것이다.

如何間에 流通部門은 다른 部門보다 가장 深刻한 問題를 社会主義経済에 提示하는 것으로서 이 部門에 있어서 自由化의 進展, 即 計劃経済의 後退如何는 바로 経済界의 消費生活의 水準如何를 가르키는 尺度로 看做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 財貨, 用役의 流通, 即 商業에 対한 社会主義化는

前章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다른 経済部門에 比하여 다소 지연되었으나마 現在에 와서는 完成을 본 것이라고 判断되는데 그것이 必要하고 可能한 理由를 여기에 要訳을 하여 본다면 ⑴商業部分의 労動力을 大幅 生産部門에 動員하지 않을 수 없었고 ⑵個人商業体가 갖고 있는 資源을 国家에서 強制吸収 않을 수가 없었고 ⑶商業部門에 対하여 政治事業을 철저히 않을 수 없고 ⑷党組織力을 動員할 수 있었고 ⑸商業部門이 取扱하는 財貨, 用役의 種類가 比較的 적고 ⑹需要는 強制貯蓄과 価格 統制로 完全調節이 可能하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商業部門의 自由主義的 性格의 抹殺은 消費者를 위하고 商業部門의 効率的 機能発揮를 위해서가 아니라 他部門으로서의 人的, 物的, 資源의 転用을 為해서, 그리고 完全하고 組織的인 独裁를 遂行하기 為한 政治目的을 達成한다는 理由로 社会主義化가 되고 만 것이다.

第四節 生産管理의 綜合的 考察

本章에서는 北韓体制의 重要한 一面으로서 生産活動의 管理内容에 関하여 重点的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北韓이 갖추고 있는 生産管理의 特性은 共産主義 国家中에 있어서는 顕著하게 固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지 모르나 確実히 自由主義国家에 比較하여 보면 独特한 것이라는

結論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하고, 勿論 이러한 特徵은 社会主義를 標榜하는 社会에서는 当然한 것이라고 보는 見解도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共産主義者가 「이데오로기」的 乃至 教理主義的 解釈을 할 때 発生하는 것이고 純学術的見解에만 立脚한다면 社会主義的 経済政策은 곧 前節에서 参考한 諸特徵을 自動的으로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理論上으로 볼때 Policy와 Policy의 Implementation의 方法으로서의 管理体制는 여러가지 代替的 方法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数많은 管理技術이 연구되고 紹介되고 있는 現代에 있어서는 政治理念自体가 그리고 거기에서 派生되는 政経政策自体가 一定한 管理体制를 規定하는 것이라고는 말 할 수 없는 것이며 実証的으로도 北欧의 社会主義国家, 그리고 労動党의 執権期의 英国의 生産管理体制는 北韓의 生産管理体制와 同一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見解는 北韓의 生産管理体制는 北韓의 政権者에 依하여 政権者만이 決定하는 이데오로기의 実現以外의 다른 一聯의 目的을 具現키 위하여 形成되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하는 것이다.

一聯의 目的이 무엇인가는 政治問題로 돌린다 하고 이를 達成키 위하여 一定한 経済政策이 北韓에 나타났음은 各前章에서 分析된 바이며 또 그러한 政策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本章에서 論한 生産管理体制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北韓의 生産管理는 무엇보다도 政治的意義를 갖는 強制, 束縛搾取의 生産手段이라는 것을 疑心치 않게 한다.

即 北韓에 産業社会가 있다면 民主産業社会가 아니고 独裁商業社会가 있다는 것을 가르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北韓의 現政權者의 商業社会의 存在意義에 対한 思考方式을 生産管理의 実際를 通하여서도 充分히 知得할 수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그 生態를 「맑스·레닌」主義 또는 社会主義가 아니라 一般的 経営理論에 立脚하여 綜合的으로 說明을 하여 보기로 한다.

A. 生産管理의 基本概念

生産管理의 諸般現象을 発生하게 하고 있는 哲学 또는 基本政策은 管理機構로서의 最高機関이어야 할 内閣을 超越하여 党의 中央常任部署의 政治委員会에 依하여 左右되고 있으며 이는 「集権的管理」라는 概念으로서 集約될 수가 있다. 이 集約的管理는 共産主義者 特히 金日成集団의 「푸로레타리아 独裁」라는 政治理念과 相応하는 것으로서 ⑴모든 生産分野의 完全組織化(社会主義化 라는 口実下에 断行된 国有化 및 協同化) ⑵一定한 意思疎通作業의 確立(大規模工業 企業所의 中央直営 및 地方工業企業所, 協同組合의 指導機構의 設置) ⑶生産計劃作成의 集中化 및 生産強要(各級 管理機構의 計劃部署 設置와 計劃量達成에 있어서 責任制) ⑷劃一的 生産技術 및 管理方式의 導入(単一 国立研究所設置와 唯一한 管理節次의 適用) ⑸企業利潤 또는 労動収入의 分配에 対한 中央統制(国家 納入金의 절대성 및 共同「폰드」의 優越性과 労動報酬의 制限) ⑹劃一的 增産運動의 参加 強要(所謂 社会主義競争運動 및

責任量 達成의 完全 計劃化 ⑦一元化된 監視機構를 通한 生産活動의 量的 評価(党의 末端機構의 철저한 浸透) ⑧一元化된 監視機構를 通한 生産活動의 価値評価(商業部門의 固有化 및 各種価格의 国家管理) ⑨各種生産体의 責任者에 对한 任命権의 国家掌握(各級党委員会의 組織部 活動) 그리고 ⑩政権者 및 政権機関에 対한 絶対服従心 昂揚을 위한 心理教育活動(所謂 政治事業이라고 하는 非生産活動의 計劃的 施行)等으로 具体化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特徴을 갖고 있는 集団的 管理는 非共産主義社会에 있어서의 集権的管理와 区分되어야 할 것이다.

後者에 있어서는 비록 集権的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政治와 生産이 分離되어 있고 最高管理者라 하여도 規程을 無視 할 수 없으며 計劃과 評価의 両機能은 또한 分離되고 労動層의 生産活動에의 参加가 強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厳格히 말하여 北韓의 集権的管理는 共産主義式 또는 独裁式 集権的管理라고 定義하는 것이 妥当하며 이는 앞으로 長期間에 걸쳐 変更할 수 없는 北韓 権力者의 基本路線이 되어 있는 것이다.

北韓의 理論家들은 工業分野의 一部와 農業分野의 大部分이 協同体内에서는 一部活動이 적어도 責任者의 選出이 民主主義節次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分権的管理의 一面을 内包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지만 이미 数次에 걸쳐서 言及한바와 같이 協同体의 活動이 「党의 領導下에 優越할 수 없는 限 그리고 党의 承

認 없이는 누구도 責任者가 될 수 없으므로 協同分野의 管理도 철저한 集権的体系의 一部를 形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北韓의 集権的管理의 実際가 共産主義社会, 特히 蘇聯의 生産管理와 共通性을 提示하는 것인가 또는 北韓社会에 固有한 것인가 하는 問題에 言及여야 한다.

그것은 北韓의 管理態勢가 北韓의 理論家가 主張하는 바와 같이 「共産主義로 向하는 社会主義」라는 理念에서 導出된 것이라면 蘇聯도 同一한 主張을 하고 있으므로 蘇聯의 管理態勢가 同一하거나 적어도 基本政策에 있어서 合致되어야 한다는 見解가 成立될수도 있는 까닭이다.

이 問題에 関하여는 本節 各項에서 言及하는 것이지만 設使 北韓의 管理実際가 蘇聯의 境遇와 同一하다고 하여도 蘇聯의 実際는 過去에 社会主義라기 보다도 「스타린主義」였고 또 最近에 와서는 蘇聯의 管理方針이 集権的으로부터 分権的으로 飛躍的인 転換을 摸索하고 있는 것이므로 蘇聯의 경우도 理念的所産이 아니라면 北韓도 理念的所産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集権的管理의 特性은 北韓의 独裁政権의 政治哲学과 그것으로부터 派生한 管理哲学에 固有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서 北韓의 集権管理는 理念에서 出発하지 않은 政治手段의 具現으로서의 独裁式 集権的管理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B. 独裁式 組織管理

現代 産業発展에 있어서 大規模生産은 不可避하고 따라서 生産体의 組織管理面은 重要視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社会主義理論에 있어서는 生産手段이 国家라는 単一体에 帰属되고 있어 이것의 効果的活用을 위해서 또 大衆의 効果的動員을 위해서 組織의 設定 및 運営은 重大한 問題가 되는 것이다.

社会主義路線을 択한 社会에 있어서는 社会全体를 具体的인 大組織으로 転換시키는 完全組織化로부터 自由主義社会에서 보는 小組織을 無数히 発生시키는 部分組織化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組織形態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完全組織化의 境遇는 集権的管理를 高度로 適用하는 것이고 그것은 国家機関을 最高機関으로 하고 其他 生産, 軍事, 公安, 文化機関等을 直接命令系統下에 두는 一元組織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国家首班과 一般国民을 具体的인 内容의 差가 있는 階層上의 上下関係로 変化가 成立되는 것이다.

勿論 社会主義下에서도 生産手段에 対한 所有権을 個人 또는 集団에 受託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社会的으로 部分組織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北韓은 集権的 管理의 実施를 위해 철저한 一元組織制度를 択한 것이다.

이것을 生産分野에서 더욱 些細히 分析하기 위하여 企業의 外部와 企業의 内部도 社会의 組織問題를 区分한다. 企業外部의 北韓의 生産組織体系는 実質的으로 모든 生産分野와 機関을 総網羅하여

生産社会全体를 하나의 一大組織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生産分野의 組織形態는 蘇聯의 一個의 同盟共和国의 경우를 모방한 것이 틀림 없으나 北韓은 面積이 소련의 同盟共和国에 비하여 적으므로 中央權限이 強大하고 直接的인 単一大組織이 可能하고 이것이 実際에 反映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必然 発生하는 것은 官僚主義의 諸現象이라고 보겠는데 이것은 党의 階層을 生産管理組織과 同一하게 拡大하여 末端機関에서 二重的 体系를 発生시켜 그 除去를 図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組織特性은 結果的으로 그 機能分化가 社会的으로 発生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管理機能의 「社会的分化」는 専門化의 原則을 適用한 결과 発生한 것이 아니라 生産分野에 対한 政権集団의 支配를 絶対的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다.

즉 受託機能과 最高管理機能은 企業内에 包含되어야 하는 것을 党中央組織과 政務院에서 各各 強制回収하여 버린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企業外部의 組織特性에 따라 企業의 内部組織은 完全국영의 경우와 協同形式의 경우의 形態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受託機能과 最高経営機能이 결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企業의 総責任者는 本質的으로 自由企業에 있어서 中間管理者의 役割을 担当하고 있는 것이다.

受託 및 最高経営과의 地理的分離는 前者는 党의 末端組織을 通

하여 後者는 中央일꾼들의 現地派遣을 通하여 解決하고 있는 것이다.

勿論 企業의 責任者는 內部組織의 計劃, 人員配置등의 一部 最高機能을 遂行 하기도 하나 企業이 集權的 管理로 인하여 典型的 形態를 強要当하고 있는限 自由企業의 同一機能에 比하여 問題가 되지 않을 程度로 簡単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企業內部의 組織形態도 蘇聯의 例에서 模倣한 点이 濃厚하다.

例로서, 工業企業所의 境遇 党細胞와의 二重体系, 技師長 및 副支配人制度, 職長 및 作業班制度, 參謀部署의 分化, 後方 供給部署의 設置등은 蘇聯과 같으나 研究室의 有無등은 다르며 이는 北韓의 生産水準이 蘇聯에 比하여 낮은 것을 反映하는 것이다.

또한 原則的으로 內部組織은 「參謀部制 直系 組織의 原理로서 統一되고……… 組織原則으로서 単独責任原理와 大衆의 生産管理參加의 原理는 相互 矛盾的인 原理로서 対立하고」 그리고 「企業의 経営은 組成과 処理의 管理職能中에서 基本的인 것은 国家의 손에 集權化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쏘련과 同一한 것이라고 断定되는 것이다.

C. 独裁式 賃金管理

経済理論에 依하면 労動은 生産要素의 하나이며 이에 対한 反対給付는 分配를 構成하는 것으로서 그 量은 労動이 投入되어 生産되는 製品에 対한 需要와 労動의 限界生産과의 連関으로 決定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맑스」는 이것을 資本家가 労動을 商品과 同一視하며 賃金은 이에 対한 価格을 断定한다 하고 同時에 資本家는 商業예비군을 두게 하여 労動過剰供給을 発生, 労動의 価格 즉 賃金을 계속 저하하는데 全力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맑스」主義에 出発을 두었다고 하는 所謂 社会主義의 賃金은 労動力의 価格이 아니고 「社会主義国家로 表現되는 社会全体와 自己自身을 위해서, 自己의 社会를 위해서 일하는 個個의 労動者와의 関係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自由主義의 社会에 있어서의 賃金은 経済理論에서 主張되고 있는바에 依하여 充分히 説明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맑스」主義的 見解가 옳다하여도 오늘날 北韓의 賃金이 「社会와 個人의 関係」를 나타내는 単純한 指標에 不過한 것도 아니다.

前節 「労動報酬」라는 概念下에서 본 賃金들은 社会主義的 解析을 成立시키기 위하여서는 너무도 複雑한 것이며 이는 賃金과 人間 또는 心理学的으로 본 賃金을 誘因으로 보았을때의 労動動機는 自由主義社会에 있어서나 同一한 問題点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立証하는 것이다.

萬一에 社会主義国家에 있어서는 労動은 社会全体에 対한 共同利益을 招来하기 위한 것이라는 主張이 成立되고 労動者는 이에 対한 信念이 確実하다면 모든 価値増加 및 生産活動에 対한 計数的把握은 社会를 細分되지 않는 하나의 単位로 하여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価値増加에 関해서는 独立採算制를 導入하여

이를 細分化하였고 生産活動에 対하여는 賃金制度를 採択하여 個人別로 算定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社会主義의 大前提에 - 違反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北韓도 이러한 例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더구나 社会主義의 賃金制度는 오늘날 自由主義企業에 있어서 보다 더 甚한 「個人的, 物質的, 利害関心」을 刺戟하는 要因을 具備케 하고 있으므로 이는 個人主義에로의 還元을 暗示하는 것으로도 看做될 수 있다.

이러한 社会主義原則에 対한 矛盾을 나타내는 賃金制度의 適用은 勿論 北韓이 스스로 社会主義体制를 포기하려는 準備를 하는 것이 아님은 틀림이 없다. 그들은 「個人的인 物質的利害関心은 生産向上을 為해 大衆的인 힘으로 되고 社会主義経済의 発展의 貴重한 槓杆으로 된」다고 主張하고 있거니와 마찬가지로 社会主義体制下에서도 労動力의 差出은 個人의 労動動機를 重要視 않할 수 없음을 認定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労動者에 다 좋은 報酬를 할 수 없는限 社会의 経済的価値増加에 対한 相対的 貢献度에 따라 賃金差를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政権者는 社会全体로 보아서 財貨의 消費量에 該当되는 労動報酬総額을 変更시키지 않고 그 範囲内에서 個人的 差別을 두게 할 수 있는限 社会主義体制를 갖게 되는 本質的動機의 追求에 何等의 支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賃金管理의 目的과 意義가 北韓에 있어서 事実이라는 것

은 国家納入金의 絶対優先主義, 賃金計算에 介入하는 労動等級 賃金係数, 賃金基準額等의 国家掌握, 労動폰드와 賞与金総額의 制限, 그리고 作業班優待制에 있어서의 罰則適用등이 立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賃金管理는 労動報酬에 있어서 그 実質価値 또는 実質水準을 保障하여 줌으로서 労動動機를 無制限 刺戟하려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労動相互間의 相対的区別을 明確히 하여 줌으로서 労動者 相互間의 不平을 除去하는 消極的인 動機刺戟을 하는 것이 目的인 것이다.

萬一에 自由主義企業에 있어서와 같이 賃金制度가 唯一의 労動動機刺戟要因을 充分히 마련하여 주는 것이라면 後述하는 바와 같은 労動生産性運動도 必要없고 政治事業도 必要없는 것이다.

労動報償에 있어서 実質価値의 保障 및 向上은 自由物価가 形成되지 못하고 自由労動이 可能하지 않은 北韓의 現体制下에서는 賃金管理内容의 如何를 莫論하고 不可能한 것이며 따라서 科学的으로 納得이 되지 않을 것이다.

D. 独裁式 労務管理

労務管理에 対한 強調는 管理学의 歴史上 가장 오래된 것이다.

事実上 1910年代에 出発을 본 F.W.테일러의 科学的管理法도 労動管理에 対한 研究이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自由主義企業에 있어서는 科学的 管理法은 人間의 独立性을 無視하고 心理的行態를 너무도 소홀히 함으로써 労動者의 犠牲에 의한 管理合理化를 提唱하는 것으로 看做되어 人間関係論에 立

關한 研究가 進行되고 그 結果가 오늘날 労動管理의 実際에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労動管理의 問題는 労動環境, 労動時間, 労務時間, 労務者厚生등으로 発展하여 가고 있으며 企業内에 있어서 労動者의 労動提示条件이 標準化되어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事実上 前項의 賃金管理의 内容体係는 테일러의 基本原則인 課業管理에 立脚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社会主義에 있어서 科学的 管理法이 解決치 못하는 労務管理上의 問題가 있을 것이고 이에 対한 措置가 必要되리라는 것은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를 보면 自由主義企業의 境遇와 같이 人間関係論에의 進展이 아니고 科学管理法의 加一層延長으로 発展해 나갔다는 것이다.

즉 労動者가 科学的管理法의 테두리안에서 最大労動力을 提示치 않을 것이라면 独裁式 思考方式은 労動者生活의 全面을 支配하고 強制的 動員手段을 使用하는 것을 構想케 할 것이며 이것이, 実践에 옮겨진 것이 바로 北韓의 경우라는것이다.

労動者生活의 全面支配에 依한 労動管理方式은 앞서 考察한 「労動生産能率의 提高方途」 또는 「労動生産性의 向上 運動」에 該当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는 「社会主義競争形態」라고 하는 千里馬作業班運動과 같은 社会主義的性格을 갖추는 煽動 動員을 말하는 것이다.

逆으로 「労動生産能率의 提高」가 이와 같은 意義를 갖는 것이라는 見解는 다음과 같은 理由로서 成立될 수 있다. 첫째, 労動生産性의 概念은 自由主義企業에 있어서는 経済学的概念에 不過한데 비하여 北韓에서는 이를 管理概念으로 삼고 있고 둘째, 労動生産의 增加는 計劃化되고 一定計劃水準을 達成하는 것이 労動者에게 義務로서 賦課되며 세째, 労動生産性向上은 一部 施設增加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나 北韓의 경우는 企業所内의 豫備를 動員할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네째, 生産能率을 높이는 方途로서 ⑴先進技術의 導入과 機械設備의 利用率向上, ⑵先進的 生産組織의 導入과 労動組織의 合理化, ⑶労動者들의 文化技術水準의 向上 ⑷労動者들의 先進的 思想意識水準의 向上 ⑸社会主義競争運動等등을 提唱하고 있는데 이는 広範하고도 綜合的인 課題를 国家 또는 管理者로 부터 労動者로 責任所在를 委讓시키고 다섯째, 労動者의 文化技術水準과 思想意識水準向上이 必要하다는 条件下에 自由企業에서 想像치도 못할 労動者의 価値觀念에 까지 浸透를 하며 여섯째, 그러한 理由로 千里馬作業班運動은 增産運動이기 以前에 人間改造運動이라고 主張되고 実際로 施行되고 있고, 일곱째 労動生産性向上 方途에 不服하는 労動者는 政治犯罪者로 規定되어 追放된다는 等 実로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 또는 社会主義의 労務管理는 科学的管理法이 解決치 못하는 問題를 労動者의 生活을 全面的으로 支配하는 方法으로 解決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作用하는 原理를 要約하

자면 「労動力의 緊張과 労動強化의 方法에 依하여 生産量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労動力의 緊張과 労動強化에 依한 方式은 社会主義理論家들로 認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生産量을 最大 二倍로 增加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그 以上의 增加를 為해서 앞서 論한바와 같은 新技術導入, 施設利用率增加, 管理組織의 合理化 等을 아울러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이와 같은 労動者負担을 軽減하는 方法의 導入도 北韓에서는 労動緊張과 労動強化의 最高調状態를 前提로 하고 그 뒤에 生産增加를 継続 図謀하는 見地에서 意義가 있게 操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의 生産量增加를 為한 労務管理의 寄与는 労動者의 犧牲을 前提로 한 것이었고 그 寄与度는 이미 完全飽和状態에 到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結　　論

結　　　論

以上 各章에서 考察해 본바와 같이 金日成 独裁経済体制下의 北韓経済現象은 経済의 3大要素 즉 生産, 分配, 消費에서 生産要素에만 意義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独裁者 自身인 金日成의 政治生命維持를 위한 政治構想을 実現하고자 온 時間과 努力을 対外的인 戦争 또는 工作上 많은 軍事物資를 生産하는데 消費하며, 이것이 重工業優先主義를 択하게 된 動機일 것이다.

그러니까 北韓이 重工業優先主義를 択하게된 참된 理由란 以上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쏘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軍備拡充을 위한 兵器弾薬生産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社会主義経済의 基本原則을 벗어난, 그러니까 大衆의 消費水準向上 보다는 그들의 政治的 目的達成에 일환으로서 行事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北韓独裁経済의 特徴인 것이다. 그러면 北韓의 実例面에서 본 生産管理의 側面에서 独裁経済의 諸特徴을 살펴보고 단언을 내리기로 한다.

1. 生産管理活動에 関한 経営의 具体方針은 独裁的 集権管理에 있음이 明白하다는 것이다.

集権管理란 分権管理의 概念에 対応하는 概念으로서 北韓의 最高経営責任者인 金日成에서 부터 末端労動者에 이르기 까지 上下関係가 明白히 確立되어있고 각 工場, 協同組合 등은 国家의 中央機関

에서 결정시달한 指針에 의거 運営되고 党이 간섭, 単一体系를 이루고 있으며, 財政, 販売去来도 国家機関에 限定, 地方産業은 中央의 命令下에 絶対服従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의 生産管理体系가 集権管理요,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特色을 찾아 볼 수 있다.

2. 北韓의 生産管理体系가 二重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最高経営層과 労動者와의 사이에는 多数의 階層이 있고 여기에서 오는 方針의 不充分한 反映등의 갭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党으로 하여금 末端生産組織에 까지 直接 統制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党細胞를 둔다든가, 工場党을 組織하여 集権的 体系에 党細胞라는 組織体系를 가지는 二重的 管理体系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 生産管理機能의 社会的階層 分化現象

独裁経済体制에 있어서는 수직적으로 본 経営管理機能은 企業所内에서 階層分化를 이르키는 自由主義経済体制에서와는 달리 社会的으로 分化現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生産計劃은 国家計劃委員会에서 統制計劃 生産管理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 組織된 党細胞 즉 末端労動党員들은 不平者가 발생하든지 또는 士気低下나 生産低下등의 事態가 発生할때는 社会主義思想이 불철하다느니, 保守主義思想을 가졌다느니 하면서 所謂 政治事業 또는 煽動事業을 전개하여 이를 強圧的인 술책으로 生産計劃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集中的管理의 결함을, 오히려 集

中的，強圧的 方法으로 解決하려 하는 것으로 이는 党에서 経営方針은 政務院에서 管掌하고 있다.

이렇게 計劃된 最高経営層의 決定을 政務院이나 地方行政機構가 国営工場에 전달，調整，評価 하고 郡農協은 郡協経営委員会에서 各各 遂行하고 있다.

따라서 国営工場의 支配人，農場責任者，里農協委員長은 上部에서 決定한 事項은 하등의 修正変更을 하지 못하고 다만 部下를 독려하고 責任을 지는 道具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集權化의 程度가 独裁政治性을 加味하고 있을때 階層分化의 도가 더욱 強化되는 것이라 보아지는 것이다.

4. 社会主義 競争

千里馬作業班運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国民総動員事業을 展開하고 이 운동의 崇高性・絶対性・理念性을 결부 선전하며 労動英雄의 称号를 하사하고 있다.

이렇게 生産目的達成을 위해서는 社会主義原則에 違背되는 것을 確然히 알면서도 個人別 成果給 또는 賞与金制를 実施하고 있다.

즉，労動者의 物心的関心을 刺戟하게 하는 所謂「物質的 観心原則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個人主義思潮를 導入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社会主義라는 全体主義概念과，競争이라는 個人主義概念이 本質的으로 다른 것임에도 結合適用하는 独裁経済下의 社会主義競争運動은 이상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極히 소수나마 一部 労動者가

生産性向上을 보이면 全体労動者가 義務的으로 追従할 것을 強要, 拘束하기 위한 手段, 方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北韓의 生産管理体系는 独裁的集団管理에다 二重的体系를 갖추고 있으면서 重工業生産 極大化를 꾀하여 왔으나 生産能率의 鈍化를 면치 못하고 重工業에서 軽工業으로의 発展은 엄두도 낼 수 없는 妄想이었음이 判定되었다.

이는 곧 独裁経済의 崩壊를 말해주는 것인 同時에 金日成独裁経済体制의 敗退를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